

제418회 국회  
(정기회)

#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국회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대통령경호처 소관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상정된 안건

- |                                       |     |
|---------------------------------------|-----|
| 1.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 ..... | 1   |
|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 3   |
| 가. 국회 소관                              |     |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
|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 139 |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먼저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오전에는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후 2시부터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한 후에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에 대한 이력과 병역신고사항 등 부속 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정성국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소는 좌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니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은 우측 기표소에서, 좌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투표개시)

위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10분 투표종료)

그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21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이관후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가 20표, 부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면 임명예정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임명예정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임명예정자 이관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동의를 받은 이관후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처장으로 신임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연구한 정치학자로서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정부에서 일했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관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설립 17주년을 맞이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싱크탱크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국정 전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전문성과 중립성이라는 원칙 아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급변하는 대내외적 입법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조사처가 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투표소 철거 및 소관 기관 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18분)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생이 많이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화된 저성장·저출생 등으로 위기입니다. 대외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안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진요하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헌법은 국회로 하여금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도록 하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일 진행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셔서 예산안 심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제22대 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토지대여료 증액과 고성연수원 사용료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4.0% 증가한 4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1.1% 증가한 776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9% 증액한 42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9% 증액한 35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주요사업비는 제22대 국회 개원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1.5% 감액한 318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주요사업비입니다.

첫째, 안전한 국회 환경을 위해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에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 등 청사 안전점검 및 관리에 24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형 어린이집 구축에 40억 6100만 원을, 전기버스 도입 및 인프라 구축에 7억 8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내년 광복 80주년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을 기념하고자 19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국회 개최 예산을 2억 1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넷째,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에 39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온라인자료 납본 예산 2억 3800만 원과 국회 관련 의정활동기록물 조사·발굴·해제를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에 금년 대비 8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조사분석회답 및 보고서 제공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의와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

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소속 기관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나오셔서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은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개원 예정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42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18억 6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억 6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회의 청사 임차료와 상용임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10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3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의식 증진과 지역 인권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보다 3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와 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24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권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의 인권보호 및 군 인권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5억 6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북한 인권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70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와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1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정보화 사업은 금년보다 2억 2600만 원 감액된 15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향후 위원회의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인권위원회의 감액 예산편성이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대체토론하거나 소위원회에서는 감액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가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원만한 준비를 위해 반드시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해서 의사일정 제2항 중 국회 소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국회와 인권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상시간은 12시 30분까지입니다. 아마 주질의를 5분씩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하신다라고 하면 시간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대체토론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는……

주진우 위원님, 순서 바꾸셨지요?

○주진우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주진우 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북한 인권 정책개발에 8800만 원 또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9700만 원 예산 배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유엔 산하 위원회 등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국민들에게 실상도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의 관심 대비, 우리나라 는 동포이지 않습니까? 동포로서 인권에 대한 발언을 좀 하고 인권에 대해서 좀 챙겨 둬야 결국 나중에 대한민국이 통일됐을 때 동질의식이나 인권을 매개로 한 연대의식이 저는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이탈주민을 상대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도 자주 만나 보고 또 북한이탈주민을 돋는 분들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과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권 신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어떤 인권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권위원회도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태조사가 우선입니다. 실태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나오는 것인데 지금 예산 보면 북한 인권 정책개발이라고 하는데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만 개발한다는 게 뜯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국제심포지엄도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조사한 것 보면 북한에서 망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제가 그 관련된 보고서도 몇 개 읽어 본 적 있는데요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수용소나 이런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여성 인권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인권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을 국제심포지엄 가서 제대로, 인권위원회 분들이 심포지엄에 가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심포지엄에 간다고 해서 그게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되고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제가 기준의 인권위원회의 메시지를 쭉 봤는데 국내정치 이슈는 오히려 상당히 정치적인 견해가 엉갈리는 부분에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개발, 국제심포지엄 이런 얘기는 아주 부수적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안보 차원에서 다 조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지금부터, 그분들 조사 내용을 제가 공개 하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해 둬야 언젠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인이 많고 또 그 내용의 실상도 제일 많이 알뿐더러 동포라서 가장 직접적인데 그 부분의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규모가 전체 인권위 예산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요긴하게 쓰시되 기존 인권위 직원들의 인력을 이용하셔서 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자료 축적 이런 것들은…… 실제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주 생생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저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국가기관으로서 이것은 권리가…… 무슨 시혜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조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대한으로 실태조사에도 노력을 하고 관계 부처와도 협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 축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주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충상 상임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사직서 제출하셨네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이소영 위원** 좀 가까이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다른 공직으로 가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아닙니다. 저 공무원 할 생각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언론에서 사직의 이유를 물었더니 ‘더 싸울 전의를 상실해서 인권위를 나가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사직의 이유가 뭐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그 이유가 맞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노란봉투법안이라든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가……

○**이소영 위원** 조금 짧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국회의원님들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인권위에서 토론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엄청나게 가해집니다. 그래서 지쳐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싸우다가 지치셨다. 그런데 이충상 위원께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지치셨으면 아마 다른 박수를 쳐 드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인권위를 형해화시키는 일에 고군분투하다가 지친 것 같습니다.

이충상 위원님 재직하신 지난 2년 동안 인권위에 많은 변화 있었는데요. 이충상 상임위원이 한 막말과 타인에 대한 비하, 인권감수성이 실종된 발언들이 그동안 수없이 사회적인 논란을 만들어 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아닙니다.

○**이소영 위원** 아시아 최대 인권기구 포럼 아시아 의장이 이끄는 단체가 인권위에 서한을 보내서 비판하고 작년에 우리나라 인권위 상황을 빅 디재스터(big disaster)다, 거대한 재난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었는데 이 서한의 배경에는 이충상 위원의 혐오발언이 있었던 거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제 어떤 발언이요?

○**이소영 위원** 국제인권단체인 ANNI가 우리나라 인권위에 대해서 서한을 보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서한의 제목을 보니까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틀린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우리 진보단체가 보낸 서한대로 그 서한이 작성된 것입니다.

○**이소영 위원** 어쨌든 좀 창피하네요.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편향적인 내용입니다.

○**이소영 위원** 전임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사무처 직원이랑은 같은 자리에 못 앉는다 하면서 위원회를 안 하겠다고 버티고 마비시키고, 충돌이 잦았던 전 사무총장은 부끄럽고 참혹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면서 사직하고, 이런 좀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저는 같은 자리에 못 앉겠다고 안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지난 7월에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에 대해서 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이소영 위원** 감사보고서에는 ‘이충상 위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인이 일으킨 모든 논란과 문제에 대해서 이미 사직서도 내신 마당에 오늘 겸허하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전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제가 그 네 분의 객관적인 잘못을 지적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 놓고 발표하기는 곤란하니까 발표를 안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소영 위원**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시네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백한 혀위 공문서 작성을 혀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말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기자가 이 문제를 송고할 경우에 그 직원을 형사 고발하겠다. 형사 고발하면 틀림없이 징역형이다’ 이런 문자까지 언론사에 보내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송고할 경우에’가 아니라 ‘왜곡된 보도를 계속 하시면 형사 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어쨌든 이충상 위원님 정말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으셔서 참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그동안 인권위를 엉망으로 만든 이충상 위원의 사임은 듣던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권위원이 인권을 파괴하는 이 대한민국 인권위원의 역설과 모순이 이제는 끝나기를 바랍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님,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권위 내부 보고서 작년 7월에 완성되었는데요. 사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제안되어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 하실 계획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다른 부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전 이충상 위원님의 그들과 전혀 별개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완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이충상 인권위원의 입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건데 뭘 위원하고 상관없이 개선을 한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골프가 한창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 태릉CC 골프장 정황을 취재하던 기자가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골프장을 촬영하던 중에 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전화 뺏기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보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진상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소영 위원**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 전제를, 조건을 전제로 해 갖고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휴대전화를 뺏기고 입건을 당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한 바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왜 국회 나와서 앉아 계세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제가 사실을 확인한 다음이면……

○**이소영 위원** 이렇게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고, 언론 기사는 보셨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언론 보도는 봤지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나오시든지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이소영 위원** 국회에 나와서 무슨 대답을 하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답을 하지 않습니까? 진상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까지 진상 파악해서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확인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인권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장 박찬대**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회가 물어보면 거기

에서 답변하셔야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위원장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답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 국회에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추미애 위원** 바꿨어요.

○**위원장 박찬대** 바꾸셨어요?

○**추미애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지금 상임위 열리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직까지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안창호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조만간 열릴 겁니다.

○**정진욱 위원** 조만간이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정진욱 위원** 아니, 지금 취임한 지가 언제인데 조만간 열립니까? 지금 상정 안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은 제가 사안을……

○**정진욱 위원** 재상정 안건도 쌓이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끊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정진욱 위원** 사무국장 자리가 자기 앞자리다 아래 가지고 좌석 배치 문제 때문에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게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정진욱 위원** 세상에, 대한민국이 지금 2024년입니다. 겸상하면 안 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런……

○**정진욱 위원** 직원은 겸상,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네요? 대체 인권위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것은 그런 겸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결정할 겁니다.

○**정진욱 위원** 됐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충상 위원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정진욱 위원** 11월 16일 사직서 제출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정진욱 위원** 전의를 상실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정진욱 위원** 인권위원회가 싸우는 곳입니까? 전쟁터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싸우는 곳이 아닌데……

○**정진욱 위원** 뭐에 대한 전의를 상실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제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발언을 해도 제 발언을 진보적인 언론사들이 왜곡 보도하고 비난을 퍼붓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진욱 위원** 인권과 싸우는 전의를 상실하신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진보적인 언론사들과 싸우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정진욱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산을 보면서 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인권 보호 기관이 아니고 인권 파괴 기관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그리고 또 이충상 위원님 그리고 안창호 위원님 줄줄이 들어오시면서 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작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님……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진욱 위원**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위원장님!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인격 모독입니다, 그런 것은.

○**정진욱 위원** 제가 그 근거를 댈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얘기를 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상임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진상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충상 위원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리고 제가 금년 내로 지장이 없도록 할 겁니다.

○**정진욱 위원** 이충상 위원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진상을 알고 말씀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인권감사보고서를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았지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번 예산을 보면 예산이 늘어난 것은 딱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에 7억 4000, 인건비 10억 6000입니다. 나머지 인권위원회 본연의 일을 하는 일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 예산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기획조사 1억 5800, 하나 하나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작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주민·난민 인권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이것도 거의 1억 가까이 줄였고요. 아동·청소년 인권 취약 분야 기초현황조사 4700만 원, 정신장애인 탈시설 이행점검 지표 개발 및 인권 상황 실태조사 이것도 줄였고요.

지금 정신장애인의 얼마나 계속 늘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저도……

○**정진욱 위원** 지금 이 전체 예산을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인권 상황을 실태조사하는 예산들을 줄여 가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우선……

○**정진욱 위원** 제 이야기 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국가인권교육원을 새로 열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세 분의 인권위원에 의해서 인권위원회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취임하실 때 말씀하셨지요, 상임위도 빨리 열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겠다고. 그런데 여태까지 상임위 한번 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저 31초 쓰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상 위원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통해서 징계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출근합니다. 사직서 내면 출근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출근하면서 계속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언론사 겁박하듯이 이걸 보도하면 반드시 직원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

○**정진욱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 업무 파악이 지금 돼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가 안 열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는 조만간 열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는 실체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금년 내로 그 처리를 할 겁니다. 저희가 많이 열어서라도 그 업무 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괴’ 이런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충상 위원은 징계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괴롭힘이라고 인정하셨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그거는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됐었던 거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욱 위원** 그러면 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지금 위원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오늘 나오지 마시고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짧게 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산이 긴축예산 속에서 저희가 내년 11월에 개원되는 교육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부분의 사업비 예산이 일부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축소한 거지 저희가 막 일부러 인권위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진욱 위원** 예산은 각 부처마다 늘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서 줄이는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희도 예산을……

○**정진욱 위원** 일이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은 특수 사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따로 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교육원을 위해서 다른 실제로 일하는 예산을 줄이고도 이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거하시면 저희들도 기꺼이 그거를 하고, 다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 예산 내에서 그 예산이 최대한도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안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주요사업비 현황을 보게 되면 인권교육 활성화 여기만 증가가 됐고요 감수성의 사회적 확산도 감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는 전 항목이 감소, 인권제도 선진화도 감소, 유일하게 북한 인권 개선만 지금 올라가 있고요 국내외 인권협력도 감소, 인권위 정보화도 감소.

그래서 사실 각 정부 부처나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증액하고 열심히 예산을 청구하는데 그 예산 부분을 전체 재정 상황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고 일부 감액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요사업비가 다 감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정책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위축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이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또는 예산편성이 위원장님 취임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시고 인권위원회가 자꾸 축소되고 기능을 못 한다라고 하는 여러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장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 김민기 사무총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참 많이 알려진 게 늘봄학교이고 또 중요한 게 유보통합이거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을 일정 부분 잘 맞춰 가지고 모든 국민이 책임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고 또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유보통합인데, 지금 우리 국회 내에 어린이집이 3개가 있는 것 아시지요?

○회사사무총장 김민기 예.

○정성국 위원 직장 내 어린이집이 3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국회어린이집이 최고라는 말이 많았대요. 국회어린이집 오면 정말 최고의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게 정말 많았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사사무총장 김민기 예.

○정성국 위원 자랑스럽지요?

○회사사무총장 김민기 예.

○정성국 위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좀 놀란 게, 아이들 급·간식비 중요하지요?

○회사사무총장 김민기 예.

○정성국 위원 너무 중요하지요. 5년째 동결입니다. 지금 식료품비 상승이 어마어마한데 급·간식비, 아이들 잘 먹여야 되잖아요. 5년째 동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사무총장 김민기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국 위원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국회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급·간식비가 5년 째 동결돼 가지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급·간식비 식재료비 증액,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요청드리니까, 요구드리니까 이것 바로 검토하여 가지고 사무총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말만 국가교육이다, 책임교육이다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부터 이 부분을 챙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무총장님, 혹시 보육교사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회사사무총장 김민기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국정감사 때 확인을 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확인 이후에 조치가 있었습니까?

○회사사무총장 김민기 지금 예산을 증액할까 하고요,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호봉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 약 1억 8200만 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는데 이게 큰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살 아이를 맡는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8살, 7살 초등학생 맡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도 완전히 다른 게 아이 하나, 유아를 맡는 1명의

비율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지는 고충과 어려움, 그 노고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6학년 아이를 가르쳤을 때와 1학년, 2학년 학생을 가르쳤을 때 그 차이를 너무 절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필요해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어린이집 선생님,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이렇게 중요한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총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꼭 좀 관찰시켜 주시면……

○**정성국 위원** 여기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당이나 야당 위원님들도.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4페이지 보면 탄소중립형 어린이집 구축에 40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게 제로에너지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린이집 세 군데에 쓰여지는 에너지를 모두 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는 사업입니다.

○**정성국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제가 이것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잘하셔야 되는 게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정성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혹시 초과근무수당 인상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초과근무수당의 인상 계획은 시간을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업 범위를 늘리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도 제가 보좌직원들에게 집에 가라고 백번 이야기해도 안 갑니다. 이유 아시지요? 국회의원이 새벽 2시까지 남아 있으니까 다 남아 있어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초과근무 정액분 33시간 딱 정해 놓고 그게 끝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누가 챙겨 주셔야 됩니까? 총장님이 챙겨 주셔야 돼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것은 지금 33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38시간으로 5시간을 한번 연장해 볼까 하는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관찰시켜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저는 다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미애 위원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국가인권교육원 설치를 국가인권위에 두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권위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의 국가권력적인 작용을 옹호하거나 변명하는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적 감수성이 취약한 이 정부가 내뱉은 말이 이런 겁니다, ‘국가인권위는 좌파 해방구더라’. 상임위원 입에서 그런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만 관심이 있고 마치 잣밥에만 관심이 있는 인권위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은 국가인권교육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라고 제안을 하셨지만 저는 이 예산안은 편성을 보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권위가 인권의 국제적인 원칙을 일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권은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관찰이 되어야 합니다. 불가양의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임의로 처분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안부 문제가 그랬고 강제징용공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이 두 사안은 한일 외교에 있어서 장애물이라 생각을 하고 외교 도구, 외교 수단으로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치워 버린 것입니다.

자칫 국가인권교육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할 경우에 교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좌파 해방구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우파적 시각의 이념교육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인권교육이 아니라 반인권교육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류해야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정진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분들이 국가인권위 아니면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 예산을 한 30억에서 24억 정도로 삭감을 해 버린 것 같아요, 5억 6700만 원을 삭감을 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무려 전년도 대비 약 20% 가까이 삭감했다는 겁니다. 인권위가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상비, 겨우 인건비 정도나 여기에 반영이 돼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참 한심하다,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권을 남용하는 대통령,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를 길들이기에 한창입니다. 그 근거로 국회가 추천했던 이숙진 국가인권위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검증을 평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동의 다 마치는,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증은 끝난 겁니다. 검증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제공을 하고 국회가 거기에 인준투표를 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새삼 대통령의 권한으로 새로운 검증을 평계로 해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를 길들이겠다 하는 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관조차 4명을 현재까지 임명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무관 인사까지 집요하게 간섭하는 것은 국가인권위를 길들이고 무력화시킬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데요.

인권위원회장님, 국가인권위원회로서 대통령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 항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얘기 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미애 위원** 어떤 항의를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충상 위원께서 사표를 내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인사혁신처에 사직 서류가 넘어 간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사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계나 수사 중이라 듣지 이런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이나 이런 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미애 위원** 혹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사직 처리를 안 하면서 일시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 피곤하다, 시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냥 회피용 사의 표시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진심으로 보아지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다음 후임자를 고려한 본인의 내부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일시 모면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아마 본인의 의사도 후임자가 있 을 때까지, 선임될 때까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 말이 그 말인 것이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의사지요. 사직이라는 거는……

○**추미애 위원**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지난번 박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감 하루 앞 두고 사표 처리해 버렸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거는 여러 절차를 다 거쳤고요. 지금 이충상 위원은……

○**추미애 위원** 같은 사표를 낸 건데 앞에 있는 것은 얼른 사표서를 처리를 해 버리시 고 이번 거는 후임을 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동일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두 가지 다 동일한 절차를 밟 았고, 다만 이충상 위원은 본인이 후임자 선임을 전제로 해서, 그것은 우리 인권위원회의 업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숙진 인권위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임명 하시고, 이걸 대통령이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찬대**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제대로 사표를 내신 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장님께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 2025년 예산안 보니까 상임위원들 월급이 1176만 원, 연봉이 1억 4112만 원이더라고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김용원 상임위원 이런 분이 이 정도 세금을 받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분들이 하는 일이 우선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또 상임위원회도 참석하고……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건 있고 더 나아가서……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근무태도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역할이야 저희도 다 알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리고 소위원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권위원회가 2010년 이후로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 전원위나 상임위가 무산된 적이 올해 전까지는 한 번도 없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이충상·김용원, 두 분이 수십 차례 회의 보이콧을 남발하여 가지고 회의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회의가 몇 차례 무산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천하람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

○천하람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최소한으로 잡아도 열여덟 번 이상 회의가 무산되고 두 분이 그냥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고 회의 무산시키고 나가 버리고 그러시거든요. 이게 1억 4000이 넘는 월급을 받는 차관급의 고위 공직자가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사실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장하신 것들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말만, 한쪽에 편향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백번 양보해서 내용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분이 아무리 자기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를 보이콧하고 의사정족수를 무력화시켜서 회의를 거의 혼란시켜 버리는 형태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세금을 받아 간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위 상임 위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권위원회의 핵심이신 분들인데 이게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도 직책수행경비, 관용차유지비, 업무

추진비 해서 상임위원 세 분이 5억 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추가로 또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가 있게 보는 지점은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소위 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군에 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군장병의 인권 보호가 사실 거의 올스톱 됐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던 12사단 훈련병 사건도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보고서에 담아 놓고도 ‘군에서 알아서 앞으로 잘할 겁니다’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요. 제대로 이걸 뭔가 사고 발생 후에 바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을 미루다가 방문조사로 격하했다가, 지금 이런 행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보면 무슨 군인권보호관인지 아니면 무슨 국방부 출장소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군인권소위, 지금 위원장님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이것 예산이 지금 현재 같다면 이 예산 쓸 필요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용원 위원이, 처음에 군에서 경찰에 자료를 보냈다가 다시 일부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원 위원이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군에서 회수한 것을 곧바로 경찰에 보내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리 있습니다마는……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채 상병 특검이나 박정훈 대령 사건은 그렇다 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사단 훈련병 사건은 무슨 권력이랑 결부된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조사해 놓으시고 왜 의견표명 안 했던 겁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건 김용원 위원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인권위 구조가 전원 위에서 결정하지도 않고 위원장한테 그 부분은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그게 그대로 결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관여를 사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은.

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그래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뱅킹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각종 보안을 호소하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상당히 괴로움이 있는 것은 경험하셨지요, 총장님께서도?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명색이 보안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보안 취약점이 될 때도 많고 그리고 컴퓨터 실행 속도를 늦게 하거나 운영체계를 공격할 때도 많은데 국회사무처 운영하는 시스템 하나 이용할 때 이런 보안 프로그램 몇 개까지 설치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

○**강유정 위원** 7개까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게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그리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있어서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버전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라온시큐어사의 Key#Biz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어디에 쓰이느냐면 국회메일시스템,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모바일 국회의원·직원증 이용자센터, 국회 VIVA-NA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이런 식으로, 청원시스템까지 7개나 의무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좀 살펴봤어요.

국회전자청원시스템 버전이 2024년 8월이 최종 버전인데 나머지 6개는 2024년 10월입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게 되면 충돌을 한다거나 혹은 컴퓨터가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잉카인터넷의 nProtect,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이고 국회메일시스템은 2023년 6월, 그러니까 버전이 다 다른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충돌 때문에 몇 번이나 출입증을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여러 번 했는데, 더 문제적인 것은 TouchEn nxKey, Key#Biz라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업데이트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모든 서비스의 문고리 역할을 하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시스템은 알고 계시지요? 이 시스템 실행 환경구성 설치 프로그램이 드림시큐리티 회사 건데요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무려 2005년, 19년 전 12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동안 바뀐 윈도우만 벌써 비스타·7·8·10·11, 5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저는 답답했습니다. 운영체계가 수없이 바뀌는데도 왜 이렇게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총장님? 이것을 아마 아무도 지적을 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왜 안 됐을까요? 19년 전 버전입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죄송합니다.

○**강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민국 위원** 사무총장님, 왜 실실 웃으면서 하세요, 총장님이?

○**강유정 위원** 아니, 제가 질의 중입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자꾸 실실 웃어 가지고.....

○**강유정 위원** 제가 질의 중이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강민국 위원** 아니, 강 위원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강유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질의시간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질의하세요.

○**강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보안체계나 국회 보안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보안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살리기 명목으로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수하는 건 맞습니다만 아까 공용인증서에서 은행권 인증서가 공동인증서라든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는 보안은 높이고 편의성을 강화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좀 국회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사무총장님이 지금까지 별로 이런 이의가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보안은 높이고 편의성은 또 높이는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제가 몰랐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말씀하시지요.

○**고민정 위원** 아까 위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장님께서 벌컥 화를 내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인격 모독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잘못을 또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될 마지막 보루가 인권위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 소수자들 가운데는 성소수자도 있겠고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일들을, 이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현장을 정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될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가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현장 많이 가고 계시군요.

얼마 전에 강태완 씨라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산업재해로 사망한 몽골 청년을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고민정 위원** 미등록 이주아동이었습니다. 6살에 몽골에서 온 뒤로 26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아동이 결국은 주검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인권위 앞에서는 시위도 열렸었고 기자회견 한 것도 내용도 알고 계실 테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법무부에서 결국 이 이주아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적인

조치가 당연히 물론 필요할 테지만 그 속도는 너무나 더디고 그 사각지대 안에서 이 아동들의 인권침해는 너무나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 그때마다 나섰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2020년 5월에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를 했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21년 4월부터 25년 2월까지 구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제된 게 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21년에 인권위가 다시 더 보완해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만들긴 하는데 그래 봤자 한 900명 정도가 또 구제되는 겁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그나마도 인권위가 그러한 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도 어쩔 수 없이라도 단 몇백 명이라도 그렇게 구제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막 문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구제 대책도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내년 2월에 끝나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4일 날 관계 기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대책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유관 부서와 같이 그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말 좀 더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런 아동들이, 또 국내에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자기 본국이, 사실은 국적을 가진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현상을 알고 있거든요.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데 더 적합한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강태완 씨도. 그래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때 조문이나 이런 절차가 있으면 우리가 화환이라도 보내자 이런 나름대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위로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입니다.

○**고민정 위원** 이 2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을 어떻게 구제해 낼 건가…… 제가 다만 조금 기우일 수는 있겠지만 걱정스러운 건 위원장님께서 법조인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법의 잣대로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나, 인권위는 법적으로 이 이주아동들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된다는 걸 권고하고 주장하고 강하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게 인권위인 건 맞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그분들의 인권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방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입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청년정치인인재과정이라는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이게 기존의 시민의정연수과정을 확대 개편한 것이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명구 위원** 이게 취지는 국회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지식과 비전을 갖춘 청년정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라 그래요.

총장님, 저는 청년정치인 양성이라는 목적이 우리 국회사무처 본연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지금 그 제목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데 이게 국회사무처가 청년정치인을 초청해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런 역할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직접 청년정치인을 양성하겠다라는 목표 있잖아요. 이게 국회사무처가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에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위원님 말씀 듣고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발하는 과정이 투명하다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치인을 양성한다 이것이 취지에, 위원님 말씀……

○**강명구 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명구 위원** 그래서 그 사업목적이 어쨌든 국회사무처에 부합하는지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이 사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차라리 정당에 지원해서 정당들이 추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무처는 중립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이것은 이름을 민주주의로 개념을 좀 바꿔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위원** 광복 80주년 그리고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19억 3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명구 위원** 그런데 이 중에 독립운동 기념공간에 상징조형물을 제작하겠다고 10억 원을 배정했어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명구 위원** 어떤 상징조형물이지요, 이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상징조형물은 인물 중심이 아니고요. 사건 중심으로, 독립운동 사건 중심으로 해서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예전에 하여튼 여러 공공기관들에서 상징조형물 이것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 돈을, 세금 낭비 아니냐, 1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19억 원 중에 1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 대부분

을 어쨌든 이 조형물 만드는 데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는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또 싸울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 조형물 만드실 때 어쨌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공정한 선정 과정을 가지시든지 그렇게 해야 또 다른 정쟁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래서 이 기념공간 조성을 하는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추진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명구 위원 그리고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주간 전시회를 한다고 세목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명구 위원 여기 기획전시물 가설비만 1억 8600만 원 명시돼 있네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명구 위원 구체적인 내용 아세요, 총장님? 행사 전체 비용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 알고 계세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박물관의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그것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세부 내용 그다음에 실행 방안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사무총장, 저번에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국회가 운영 중인 2개 공식 유튜브 채널 문제 제기를 했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민국 위원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공식 유튜브 채널 1개로 통합해서 예산 절감하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번 예산 한번 보셨어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민국 위원 아직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래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문화소통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것과 방송국 소관이 있는데 문화

소통에서 하는 것은 작년보다 약 50%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방송국 소관에서의 유튜브는 38%를 감액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무총장, 국회 언론·공보활동비로 온라인미디어 운영계정에 7억 6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국회방송에서 프로그램 제작·구입을 위해 62억 3000만 원을 또 예산을 잡아 놨어요. 이 예산 중에서 유튜브 채널에 드는 예산이 각 부서별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 좀 해 줘 봐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에는 7억이고요 SNS 동영상 제작 지원은 3억이고요. 이것은 문화소통기획관실 소관이고요. 방송국 소관은 2억 6400이고요, 소셜미디어 운영 프로그램 제작이요. SNS 동영상 제작 지원은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한, 그러니까 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번에 프로그램 직접 제작비를 10억이나 대폭 증액했던 테,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제작 인원은 그대로인데 예산만 10억 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제작 인원이 함께 느나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10억이 는 것은 운영위원……

○**강민국 위원** 10억 원이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외부 제작을 하지 말고 자체 제작을 대폭 늘려라 이렇게 해서 대폭 늘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의사중계 이것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인원은 그대로이고? 제작 인원은 그대로인데 예산만 10억 증액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도 늘린다는 말입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르시는군요. 그렇지요? 모르고 계시지요? 파악이 안 됐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지금 인력을 늘리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민국 위원** 그리고 직접 제작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계획도 세웠더라고요.

일반수용비 뭔가 총장님 아세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민국 위원** 보통 우리가 용품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잡비 형태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경상적 경비.

○**강민국 위원** 직접 제작비를 이런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35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잠깐만요.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국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총장님, 저번에 내가 유튜브를 효율적으로 해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하라고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것을 총장이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지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제가 그때……

○강민국 위원 의정활동 했다고 내가 존중 좀 해 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총장님!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답변하세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우선 내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강민국 위원 그게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외부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서 고정비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총장님!

아니, 직접 제작비를 일반수용비로 왜 했느냐, 일반수용비는 용품비나 업무추진비, 잡비로 사용하는 건데 35억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달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달나라 이야기를.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 건지, 저도……

○강민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올라온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 올라온 걸 보고.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저한테는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잠깐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민국 위원 됐어요. 내가 추가질의할 때 할게요.

○위원장 박찬대 오늘 오전 중에 끝나서 1분 더 드릴 테니까……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만 해 보세요.

○위원장 박찬대 총장님, 자료 없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서면이나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해 갖고 따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총장님, 따로 내 방에 보고를 좀 하라고요, 그러면.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요, 그래.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사무총장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탄핵의 봄 등에 대해서, 사무실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총장님께서 이에 대해 답변도 하신 게 있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승규 위원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을 오전 11시에 진행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들 한 40여 명이 참여를 했네요.

또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반정부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여사 비방 다큐영화를 22일 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봤더니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것도 대관을 해 줬네요. 그것도 총장님이 허가하셨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승규 위원 김건희 여사 비방 다큐영화를 22일 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영한다는데 그거 허가하셨지요? 안 하셨습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22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김준혁 의원실에서 대관했는데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이거 지금 막 홍보하고 있어요. 모르십니까? 이것 몰라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지금 대관 허가가 불허가 났습니다.

○강승규 위원 불허 났어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난번……

○강승규 위원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했는데 허가가 났다는데, 이것? 안 났어요?

○강명구 위원 불허했어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어제 조치됐고요. 위원님들께서……

○강승규 위원 어제 조치했습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걸로 해서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관일 경우 즉 대회의실, 소회의실, 1소회의실, 2소회의실일 경우에 그리고 100명 이상의 관객이 있으면, 참여자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승규 위원 자문위는 그러면 어제 회의를 했습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금요일 날……

○강승규 위원 지난주 금요일이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지난주 금요일, 이것도 절차가 있어서요.

○강승규 위원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할 때는, 그때는 자문위원회를 안 열었었군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이번 경우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우려가, 질서유지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을 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국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질서유지에 방점을 둔다, 이것까지입니다.

○강승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회사무처 내규에 규정돼 있는 ‘특정 개인

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타인의 권리 이런 부분 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것은 유지가 되는데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 주셨던 것은 5호와 7호였습니다. 5호는 비방이고요 7호는 질서유지였는데 국회사무처는 질서유지에 방점을 두고 그동안 국장 전결인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70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는 사무의 영역에서만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맞았다, 그러나 질서유지에 협력하게 우려가 있으면 그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겠다가 그 당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회사무처 예산 항목 중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에 65억 원을 증액 하셨는데,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40억 원 정도가 탄소중립형 국회어린이집 구축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탄소중립형 에너지 등을 좀 홍보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어린이집은 탄소중립형,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시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혹시 계통이라는 것 아시지요, 3선 의원이시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승규 위원** 전력에 있어서 계통이라는 것 아시지요, 계통?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승규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아니요. 그냥 하세요, 한 분도 안 드렸기 때문에.

○**강승규 위원** 계통이라는 게 있고 계통은 여러 가지 전력이 생산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해서 효율적인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호남에 상당수 태양광에너지 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지만 계통이, 그러니까 그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지금 생산시설이 놀고 있어요. 또 강원도에는 LNG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시설을 해 놓고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국회에서 여기의 계통에 의해서, 원자력에 의해서 생산되는 에너지든 LNG든 석탄이든 생산된 에너지들이 지금 서울에서 아주 제대로 계통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는데 이쪽에만 어린이들에게 그런 탄소중립 에너지를 교육한다고 40억 을 들여서 ESS 전력생산장치를 여기다 설치하고 또 태양광시설을 하고 하면 전력계통의 계통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예산 낭비예요. 이게 뭐 설립하려는, 이런 것 설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그게 전력계통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된다고요.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도 좋고 또 원자력도 좋고 다 좋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통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우리 산자위에서는 출력제어를, 그래서 신재생도

출력제어를 하자, 원자력도 출력제어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 등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답변해 보시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재생에너지 사용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문제, 어린이집에다가 하는 것으로 100%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 점도 취지는 좋으나 예산이 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감에서 올해 안에 인권상황보고서 조속히 발간하라고 요청했었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서미화 위원** 발간 날짜 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하여튼 그거를 적어도 금년 내로 발간을 위한 여러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서미화 위원** 이제 절차를 밟는 것…… 안건 상정이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전원위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안건 상정이 됐었는데 당시에 많은 위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아직 안건 상정 안 된 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됐습니다.

○**서미화 위원** 됐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랬는데 의결이 안 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때 굉장히 의견이, 위원님들의 다수가 이대로는 발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올해 안에 보고서 나올 수는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적어도 절차는 다 밟으려고 합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예산 집행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취임하시고 첫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저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미화 위원**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전원위 속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충상 위원님의 막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집필 직원을 특정해 가지고 ‘편향적이다. 문장력은 있는데 좌편향적이다’라는 이런 막말을 하셨고요. 실제로 해당 직원도 당시 회의에 배석을 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인 모욕을 주셨어요.

위원장님, 혹시 이충상 위원님의 억지나 주장 때문에 보고서 발간이 늦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충상 위원님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위원님들이……

○**서미화 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러면……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이게 인권상황보고서거든요. 22년, 21년도 것 이렇게 상당히 분량이 있습니다. 인권상황보고서가 곁으로 봐도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요. 지금 이 보고서를 인권위 직원 단 2명이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서미화 위원** 이 정도면 굉장히 엄청난 업무 강도로 보여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만약에 혹시 이 직원들이 인사 발령이라도 나 버리면 대체인력은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 내로 여하튼 절차는 다 밟아 놓고 그래서 발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서미화 위원** 인력이 대체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대체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찾으면 우리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 인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미화 위원** 대체인력도 있을 것 같다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서미화 위원** 명색이 국가기구 공식 보고서가 발간위원회도 지금 없고요. 아무런 매뉴얼도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할 때……

○**서미화 위원** 발간위원회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처음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서미화 위원** 발간위원회 없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서미화 위원** 발간위원회가 없다고,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지금 정식 기구는 없습니다.

○**서미화 위원** 발간위원회도 없고 어떤 매뉴얼도 없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정식 그것은 없습니다.

○**서미화 위원**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서 인권상황보고서가, 물론 이번에도 약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력이라든지 또 발간위원회라든지 매뉴얼 제작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된다고 봐요. 제가 증액 요구서 제출할 건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장님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국감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좌충상우 용원 때문에 위원장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누구보다도……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서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누구보다도 직업적 자존심이 높으신 분이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데 지금 250여 명의 인권위 직원들이 하루하루 위원장님의 정의로운 지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좀 강단 있게, 결단성 있게 정의를, 인권 발전을 위해서 선택을 잘해 주십사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직원들이.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인권상황보고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절차 다 밟으시고 되도록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의 결단과 추진력 꼭 좀 보여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다음은 이충상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사직서를 내시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동력을 잃었다. 지쳤다’,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밝히시긴 하셨는데요. 맞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들었는데, 그렇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충상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 위원** PPT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진실·화해위원장이나 정부 부처 요직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전혀 아닙니다.

○**서미화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인 부처거든요. 보이세요? 제안받은 것 없으신 거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없습니다.

○**서미화 위원** 없습니다까? 제안하셔도 안 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아니고, 저 공무원 안 합니다.

○**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충상 위원, 오늘 여기 발언은 제가 꼭 믿어 보겠습니다. 이충상 위원님도 지치신 것 같아요, 많이.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서 위원님, 제가 야당의 적이 아닙니다.

○**서미화 위원** 나중에 답변 주실래요?

이충상 위원님도 지치시고요 국민들도 지쳤습니다.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충상 위원님 같으면 저라도 하루라도 빨리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서미화 위원**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인권위원회법에……

○**서미화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인권위 상임위원이.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서미화 위원** 그렇지만 아까 여려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본인이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업무를 좀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그것은 아닙니다. 권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입법하셨기 때문에 직무는 수행해야 됩니다, 사표 수리될 때까지.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PPT 좀 봐 주세요.

인권위원이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전체 위원을 소집해 가지고 의결해서 퇴직할 수 있거든요. 이충상 위원님 상황 고려해 가지고 이 상황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볼 때는 심신 쇠약은 아니고요.

○**서미화 위원**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충상 위원님과 상의 하셔 가지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심신 쇠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위원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심신 쇠약이라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서미화 위원** ‘지쳤다. 너무 많이 맞았다’ 이런 말씀이 그런 취지로 저는 들리던데 아닌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아니, 싸우는 것에 대해 지쳤을 뿐이고 저 논문 쓰고 다른 일 잘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화 위원** 아니요, 저 조금 더……

○위원장 박찬대 아니요, 오전 중에 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남규선 위원님 잠깐 저쪽으로 계시고요.

오시는 동안에 먼저 안창호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충상 위원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4건에 대해서 1년간 조사를 통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이 보고서가 비공개됐는데 이 보고서 비공개 이유가 정무직 공무원이라서입니까, 아니면 이충상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허위라서 그렇습니까? 비공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은 전임 위원장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또 이것이……

○신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신장식 위원 사유가 뭐냐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래서……

○신장식 위원 아니, 개인정보는 지우고 해도 되고,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정무직이라서 비공개하신 거예요, 아니면 보고서 자체가 허위라서 비공개하신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둘 다 다 아니고 원래 이런 비위 조사는 비공개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비위 조사……

○신장식 위원 허위라서 비공개라고 이충상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비공개했는지 사유를 아직도 확인을 안 하셨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빨리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비공개 사유가 뭔지 확인해 주세요.

남규선 위원님, 확인하시는 동안에 여쭙겠습니다.

확인하세요, 빨리. 확인하시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신장식 위원 2006년부터 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법을 권고하고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일찍 권고를 해 왔습니다.

○신장식 위원 공식적으로 2006년이라고 언론 기사에는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요.

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서 입법을 권고한 이유는 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와 맞닿아 있는 것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 안창호 위원장님이 지난 10월 31일 날 업무보고 하실 때 평등법 제정과 관련된 것이 보고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 의사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장식 위원** 본인 의사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회의 업무상 직무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신다고 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말씀을 드리지만……

○**신장식 위원** 그때 분명히 직무를 우선해서, 종교적 신념보다는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우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종교적 신념과는 달리 결정을 할 겁니다마는……

○**신장식 위원** 거기까지 말씀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이거 허위 보고거든요, 국회에. 그래서 제가 허위 보고인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왜 허위 보고입니까?

○**신장식 위원** 평등법 제정 추진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그날 제가 제 의사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기관의 보고와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래도 그거는 위원장의 의사가 안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거는 허위 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장식 위원** 좋습니다. 허위 보고를 제가 국회법상 처벌할 수 있는지 찾아보니까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 어간에 국회법이 개정돼서 허위 보고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종교적 신념과 기관장으로서 직무상의 직무가 충돌할 때 직무를 우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신장식 위원** 분명히, 청문회 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 관계없이 처리한다고, 우선이라는 표현보다는 달리하겠다 이랬지요.

○**신장식 위원** 남규선 위원님, 지금 인권위원장의 직무는 평등법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해야 됩니다.

○**신장식 위원** 인권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그때 말씀 다 하셨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질문은 그것의 답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찬대** 위원장님!

○**신장식 위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위원장 박찬대** 위원장님, 여기는 국회의 시간이에요.

잠깐 멈춰 주시고요.

○**신장식 위원** 종교적 신념과 직무상의 직무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충돌 합니까, 안 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면 답을 들어 보십시오.

○**신장식 위원**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충돌해요, 안 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충돌 안 합니다.

○**신장식 위원**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부터 다시 읽고 오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내가 위원님보다는 많이 알 겁니다.

○**신장식 위원** 뭐라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님보다는 많이 알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장식 위원** 저렇게 위원을 모욕을 하시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저를 모독을 하니까 그렇지요. 다시 읽어 보라고 먼저 위원님께서……

○**신장식 위원** 종교와 직무상의, 인권위원장의 직무와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충돌 안 합니다.

○**신장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셔서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국회사무총장님!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신장식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퍼스트레이디’ 불허하셨다고 하셨어요. 비방과 질서유지,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하셨다고 하셨어요. 질서유지의 어떤 문제가 도대체 영화를 상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신장식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서울의 소리를 반정부 언론이다, 반정부 언론이라고 누군가 규정하면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도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개한 의원의 의정활동의 자유도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설사 표현의 자유상 소위 반정부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국회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 언론이 반정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면 그건 국가보안법상의 문제고요. 누군가 반정부 언론이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질서유지와 관련 없이 비방 목적을 인정하거나 자문위원회에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 의회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혼들려고 하는 시도에 국회사무처가 혼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좀 잡아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7호에 있는 질서유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알맞은 형태로……

○**신장식 위원** 총장님!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신장식 위원** 질서유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이 영화 상영을 소개했던 의원님 그리고 이 영화 상영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매우 명예를 훼손하거나 예단을 하고 있다. 그 단체가 질서유지에 어떤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소개 의원님은 국회의 질서를 훼손하고 유지를 못하게 하는 반질서 사범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제가 신장식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자문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시사회, 상영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영화를 볼 때는 불을 끄고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럼으로 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불 끄면 질서유지에 문제가 생겨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화관들은 그러면 질서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입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장식 위원** 저는 그것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의정활동의 자유를 비난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사무처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의정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견결히 지켜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알겠습니다. 질서유지의 관점으로 잘 판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장님, 제가 신장식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1분 내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위원장님, 그러면 신장식 위원께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벌써 여러 번 충돌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면 30초 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그러면 30초만 말씀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잘 아시다시피 아까 2006년, 2007년 그 전에 차별금지법이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그것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론화시켜서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듣고 그런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은 전혀, 신장식 위원님께서 저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신장식 위원** 종교적 신념과 기관장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인권위원장님, 자격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장님, 올해 국회 예산이 얼마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7700억쯤 됩니다.

○**권영진 위원** 6575억 아닙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건 사무처고요.

○**권영진 위원** 사무처하고 도서관하고 다 합치면……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권영진 위원** 작은 예산입니까, 큰 예산입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큰 예산입니다.

○**권영진 위원** 큰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권영진 위원** 아마 국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국회가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4년 합치면 근 3조 되는 예산을 22대 국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일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1명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세금으로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7억 58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년 다 따지면 30억 3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거비용 보전 비용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금도 겉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후원금도 국민의 부담이고 또 일부는 세금으로 보전까지 해 주고 환급까지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한 사람을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도록 지원하는 국민 부담, 세금 포함한 국민 부담이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총장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씀 요즘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들어 봤습니다.

○**권영진 위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판결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9월에 재판에 회부된 지 4년 2개월 만에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임기 중에 이게 확정이 됐으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세비 같은 것 안 나갔겠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권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이 범죄에 연루되어서 재판부에서 1심·2심에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국회의원 세비만이라도, 보좌관 9명에 대한 월급 이런 건 빼더라도 세비만이라도 무죄 또는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급하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되거나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오면 그때 지급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국민들의 의견에?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이것은 입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법 재량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대답하기 어려우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3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심에서 유죄 확정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민감정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국회가 부응할 수 있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장님, 지금 국회사무처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도서관 예산은 올해 감액이 됐습니다.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사실 국민들한테 들어 보면 국회는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도서관은 ‘그것 참 국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서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내가 준 명목을 보니까 전자도서관 운영 정보화 사업비가 24억 25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액돼도 문제없습니까?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하여간 예산이 그동안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은데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최대한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국회부산도서관 운영도 4억 8000만 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국회부산도서관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서를 구입하는 비용 1억 5000을 삭감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진 위원** 국회에서라도 증액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요.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예, 그렇게 해서 내일 소위 때 저희가 잘 노력하도록 할 거고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권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김민기 총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이 서울의 소리 시사회 관련해서 질서유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서 많이 들던 얘기입니다. 군부독재 세력들이 계엄령 선포하고 할 때 통상적으로 썼던 것이고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을 때 가장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 아닙니까? 질서유지, 이것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장 꽂처럼 만발해야 될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진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적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총장님.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는……

○**윤종군 위원** 질문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제 얘기 드리고요.

총장님,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정치적 중립에 관련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이재강 의원님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사진과 함께 ‘무진유죄 유건무죄’라고 적은 PPT 화면이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윤종군 위원** 당시 회의장에서 두 번씩이나 ‘PPT 화면을 보시지요’라고 했는데 중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담당 PD 재량으로 송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회방송 국장과 과장이 이재강 의원실로 찾아와서 ‘PPT 보시지요’라는 발언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들으셨나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들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 봤더니 조태열 외교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질의하면서 ‘PPT 보여 주시지요’라고 두 번 분명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만 확인해도 금방 드러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무처 직원의 국회 무시, 우롱이 도를 넘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게 사실이면 그건 도무지……

○**윤종군 위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 안 하셨어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지금 그런 의미로 했다고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윤종군 위원** 분명히 ‘PPT 보시지요’라는 발언을 못 들어서 송출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기록에 보니까 두 번이나 명백히 돼 있어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윤종군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윤종군 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인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이 국회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화면을 선택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야당에 불리하게 삭제 등 편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석에서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화면들이 수시로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총장님,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확인을 아직도 안 하셨어요, 한 일주일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려면 처리 방침도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지금 이 문제 하시는 거예요?

○**윤종군 위원** 예.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동안의 국회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윤종군 위원** 아니,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정치 중립 위반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군 위원** 예.

좀 전에 서울의 소리 방송은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의 사결정을 하셨어요, 국회사무처에서.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 **윤종군 위원** 이것은 행정 영역에서 명백하게 정치 중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더 엄 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 **윤종군 위원** 더 심각한 것은 정치 중립 문제를 넘어서 인사비리입니다. 이 재강 의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채용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국회방송 내에서 하급자 등 노동 약자들을 협박하고 금 품 갈취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 **윤종군 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이게 17년도에 그 건으로 인해서 중징계를 받았는데……

○ **윤종군 위원**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요.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이게 이제……

○ **윤종군 위원**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렇지요. 지금……

○ **윤종군 위원**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 **윤종군 위원**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조사 계획?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일단은 제보사항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윤종군 위원** 그러니까 제보사항이 아직 파악이 안 됐나, 됐나 이겁니다.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보사항이요.

○ **윤종군 위원** 하여튼 엄히 좀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장님께 국회방송의 공영성 확보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세 가지를 요구드리겠습니다.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 **윤종군 위원** 첫째입니다. 국회방송을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방송국장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일별백계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희가 알아 보니까 국회사무처에 정치 중립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혹시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다고 들었거든요.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종군 위원** 사무총장 직속으로 외부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가칭 국회사무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중립위원회 설치해 주시고 기준과 규정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중립위원회 산하에 국회방송혁신TF를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인지 강도 높게 조사해 주시고요. 상사의 협박, 갑질, 금품 갈취 등 피해 입은 직원들이 있는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아직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제보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는 표현의 자유가 정말 꽃처럼 만발해야 되는 거고 노동권 이런 것도 가장 선진적으로 지켜져야 될 조직 아닙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윤종군 위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최고의 기관인 국회에서, 사무처에서 이런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금품 갈취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간사님 납으셨는데요,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인권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박성준 위원**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권위원회는 어떤 편성 방향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국민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긴축예산을 하는 그게 전제되었고요. 그런 속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인권교육원을 만들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하에서 다른 사업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다만 그 사업예산을 저희가 적지만 그 속에서도 필수적으로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인권교육 되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편성 방향에 보면 적극적 피해구제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박성준 위원** 이 인권 침해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박성준 위원** 그러면 인권 피해구제를 위해서 어떤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보마다 감액을 했던 데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대부분 그거했지만 일용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조사활동이라든지 또 군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장에 가서 입회해 갖고 우리

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현장조사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셨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 항목을 보면 취약 분야 인권개선 예산 줄였고요. 장애인 인권 증진 예산 줄였고 군 인권보호 관련된 예산 줄였고요. 특히 저는 가장 인상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취약 분야 인권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금시설, 사회복지시설 방문조사해서 인권에 대한 예방 효과…… 현장조사 아니겠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박성준 위원** 그런데 인권침해 기획조사라는 부분도 거의 반을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맞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예산이 확충되면 너무 좋지요.

○**박성준 위원** 예산 확충이 아니라, 제가 21대에서 정무위 하면서 국가보훈부 예산을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훈교육을 강화시키는 예산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 지원, 실질적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도 무슨 교육예산을 이렇게 늘리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피해구제를 위한 예산은 줄이고 교육만 하겠다, 이 예산편성의 방향이 맞는지 기본적으로 의문표를 던지고요.

검찰 출신이잖아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인권침해라는 게—전 세계 마찬가지예요—국가권력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국가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권력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중앙정보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군부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인권침해에서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보다는 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국정감사에서 드렸는데 2004년도부터 2023년, 20년 동안 봤더니—국가인권연대에서 조사를 했어요—검찰에서 조사받다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163명이고 경찰 조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76명이더라고요.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신문에 나온 언론 보도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데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요새는 현장 사망사고가 나면 저희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쉬는 날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또 새벽에 이런 때 많이 가서 현장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확실한 예방은 뭐냐면 국가권력기관이 인권침해를 하는 데 예방적 효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강화해서 실질적 피해구제를 하면 그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인권교육이 따로 없어요. 인권 피해 사례를 확실하게 구제하면 그게 교육이 되는 것이지.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그게 교육인 거예요. 어디 가서 보훈 교육한다고 사람들 모아 가지고 강사를 떠들어서 교육

하는 게 교육이 아니고 실제 피해구제를 하는 현장조사에서 답을 구하는 게 교육인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편성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입회를 위한 입회활동비를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우리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는 예산편성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평소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존경하고 사회적인 평가에서 아주 좋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보면, 예산편성을 딱 보니까 거꾸로 가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답을 좀 찾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죄송하지만 예산편성이거나 이런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박성준 위원** 확정됐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방향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런 리더십을,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되지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 예산편성 정말 거꾸로 가는 예산편성이에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이라든지……

○**박성준 위원**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소위라든가 전체회의에서 하는데 이 예산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마지막인데요 국민의힘 간사로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활동 지원 관련해서 편향성 문제를,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의정연수에 있어서 청소년 의정체험교실이 하나 있는데 신규로 청년정치인재과정, 청년토론회, 그래서 시민이라는 게 청소년이랑 청년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좀 편향되지 않았나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사무처 역량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건데 사실 우리 국민의 협세를 활용하는데 인건비를 투여하게 되면 상시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청사유지관리 관련해서 사랑채를 중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억을 신규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대통령실에 있지도 않은 사우나나 스크린골프장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도 국회 사랑재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의원들도 접근을 거의 못 해요. 그래서 접근성이 없는 데다가 그런 시설을 증축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에서 5년째 식비가, 간식비가 뮤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늘리고 최저임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은 인재를 써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 개발을 안 하시고 탄소중립 국회어린이집 구축이라고 해서 40억이나 들여 가지고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하는데, 이것 사실 그냥 전기로 써도 됩니다. 어린이들 밥도 안 챙기고 선생님들 월급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40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이게 한 군데만 삼사십억이면 글쎄요, 세 군데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갈 텐데 이게 어린이들의 식사라든지 교육의 질보다 중요한 건지, 우선순위를 좀 다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장소가 소통관 옆에 있는 지상 주차장이지요? 지금 국회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둔치까지 나가서 둔치에 관련된 주차시설까지 하느라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데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50주년 기념사업, 이것 제가 국회운영 위원회 위원이고 간사인데 총장님, 저한테 이것 사전에 보고해 주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냥 덜렁 올려놓으시고 통과되겠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정말 중요한 사업이면 저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전에 했을 텐데 덜렁 올려놓고 되거나 말거나 이런 취지가 아닌지, 죄송해요. 제가 곤혹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거고.

사실 제가 독립유공자의 자손이고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입니다. 광복 80주년 저희가 기념을 해야 되는데 왜 국회에 조형물 10개를 개당 1억씩 해 가지고 10억, 80주년에 10개 하고 그러면 90주년에 또 10개 할 겁니까? 100주년 때 한 20개 하셔서 40개 채우실 겁니까?

국회라는 게, 오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회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릴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때 된다 그래 가지고 선심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념용이라든지 이걸 만들어 내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은 오늘 요구하지는 않아요. 답변은 내일 예산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거의 마쳤는데요.

○**신장식 위원**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신장식 위원** 예, 자료제출 요구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의사진행발언……

○**신장식 위원** 자료제출 요구는 일단 국회사무처에, 22대 국회 들어와서 신청 행사 중에 불허된 행사와 그 사유 정리한 걸 좀 빠르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불허된 행사, 청사 사용과 관련해서 불허된 행사 사유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잠시 전 질문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님에게 종교적 신념과 기관장으로서 직무상의 직무가 충돌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본인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바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우선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헌법 제20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당연히 이 조항을 몰라서 ‘당신 모르지?’라고 해서 취지를 묻는 게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기관장으로서의 직무가 충돌될 때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보다 제가 헌법 더 잘 압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국회에 나오셔서 위원들에게 할 수 있는 태도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연륜이나 학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면에서 어찌면 여기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개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대리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국민이 물어본다, 국민의 시각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학식이나 경력을 비교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고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낮추신 모습을 평소의 인격대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저한테 공부를 더 하고 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가 아니시라면 제가 그 말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것으로 주질의를 마칠 텐데요.

저도 한 가지 총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에 임직원들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로하고 있어요, 밤샘도 많이 하고. 아까 수당으로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때 지적한 것처럼 직원들의 체력단련실 문제를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고 오늘 아침도 그 복도를 한번 지나와 봤는데요.

우리 국회의 임직원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체력단련실이 사실은 협소해요. 신발을 놓을 자리도 없고 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간의 장소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나게 되고, 최근에 물어봤더니 운동복을 교체는 해 줬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고,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

던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의 예산을 한번 살펴봤는데 행정부 예산은 올해 정부 제출안이 667조, 그러니까 한 650조쯤 되지요. 그다음에 사법부 예산은 4조 한 3000억 정도, 입법부 예산은 한 7000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행정부에 비해서는 한 0.01% 정도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불요불굴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이번에 운동복은 교체했고요 바닥재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도 새롭게 들여놓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우리 의정활동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꾸준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리고 인권위원회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종교적 신념이 강하시고 아마 그 부분이 인격이나 사회적 활동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어서 때로는 귀감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 또는 나그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사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누가 돌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정부기관이 돌봐야 될 거고 공공의 영역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가장 피해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합의제 기구가 바로 인권위원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임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인권과 관련된 의제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념을 관철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그리고 어디 매달릴 데 없는 힘 약한 사람들, 국가권력 그다음에 공공기관, 큰 힘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나는 안창호 위원장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인권위원회의 지금 어려운 과행을 빨리 재건하시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작은 희망과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인권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외받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천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인권위원회를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이 막 사직하고 상임위원이 사직하고 상임위가 안 열리고 이런 사태는 결국 리더십의 부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를 다해 주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국회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97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총 1040억 29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으로 하여금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97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1040억 29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0.9% 증가된 9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33억 28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공통 처우개선 3%와 자연호봉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218억 40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88억 61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지원 사업비 174억 2800만 원, 국정운영 관리 사업비 66억 3000만 원,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 65억 94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 2억 6700만 원, 정보화 추진 사업비로 72억 8500만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로 6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과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지원비 174억 2800만 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본연의 대통령 보좌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 예산 대비 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정운영 관리 사업비 66억 3000만 원은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비로서 금년 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 65억 9400만 원은 대통령실 영내·외 시설물 유지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금년 예산 대비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 2억 6700만 원은 대통령실 직원의 국정운영 보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 추진 사업비 72억 8500만 원은 각종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와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금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 6억 5700만 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각종 정보망의 유지와 관리 및 국가위기관리센터 본연의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상황 실 안전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견전재정 기조 아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최소한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시어 2025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APEC 및 한·중앙아시아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호경비 안전대책 예산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선유세 간 암살 시도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위협 대응 그리고 AI 기술 등을 활용한 신종 경호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 4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90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경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3.1% 증액된 63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서 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개 세부사업에 575억 1000만 원이며 30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로 305억 1100만 원,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비로 173억 1700만 원, 경호업무 정보화 사업비로 39억 8900만 원, 경호 안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26억 9300만 원, 경호경비 과학화 사업비로 15억 원, 지능형 유무인 복합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증감내역은,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 305억 1100만 원은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인, 전직 대통령, 방한 국빈 및 기타 요인의 경호임무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내년 개최 예정인 APEC 및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총 2건의 다자간 정상회의 소요를 반영하여 운영비 90억 7290만 원, 여비 16억 4100만 원, 특수활동비 82억 5450만 원, 업무추진비 26억 7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8억 4360만 원, 건설비 8억 3600만 원, 자산취득비 51억 9100만 원 등으로 금년 대비 4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비 173억 1700만 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장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경호·경비시설 개선을 위한 운영비 18억 8300만 원, 경호·경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건설비 102억 9400만 원, 경호경비 장비 과학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51억 4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2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업무 정보화 사업비 39억 8900만 원은 경호업무 정보화시스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 운영비 17억 6600만 원, 사이버보안 등 보안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9억 5000만 원, 정보화장비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12억 7300만 원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비 26억 9300만 원은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18억 8136만 원, 경호처장배 사격대회 포상금 등으로 600만 원, 교육훈련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비 4억 6326만 원, 교육훈련 과학화 목적의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4237만 원 등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경비 과학화 사업비 15억 원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엑스레이 검색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통해 경호보안 검색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로 금년 대비 연구개발출연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비 15억 원은 장비, 인원, 공간이 통합된 입체적 경호 관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연구개발출연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호업무가 효율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일단 대체토론을 진행하다가 의결정족수가 차는 대로 소위로 회부하는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잠깐 의사진행……

오늘 현안질의 하기로 했어요?

○**배준영 위원** 예산안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숨 좀 돌리고 하실까요?

○**임이자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

○**임이자 위원** 내가 할게요, 그냥.

○**위원장 박찬대** 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예.

상주·문경, 문경·상주 운영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현안질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현안질의 있다라고 하니, 사실은 비서실장님이나 아니면 정책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도 대통령실 예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특활비를 다, 다는 아니겠습니까마는 삭감하겠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철호 수석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시고 또 대통령경호처 차장님께서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이것 좀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2분씩 2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임이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실은 비목으로 3대 사업비 포함해서 특활비를 이번에 5억을

감액해서 178억으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주 꼭 불요불급한, 그리고 필수경비 정도 안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이 예산만큼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대통령비서실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 경호차장님.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저희 경호처는 특활비를 2025년도 6억 5000만 원 증액되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증액된 부분으로서 내년에 APEC 및 한·중앙아시아 다자간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편성을 요구했고요. 특히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그다음에 방한하는 국빈 정상에 대해서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늘 향시 해 왔던 경호임무 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우리 안보실 차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저는 홍철호 수석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홍철호 비서관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해 보시고 또 사업도 해 보시고, 사실 기관의 특활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야당 때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활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어떤 사업 하나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가, 시급성이라든가 적절성이라든가 자원의 분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는 있겠지만 특활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주당도 다 여당 해 보셨고 정권 잡아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보고 그냥 꼼짝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지금 현재 예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철호 수석비서관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경제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다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이럴 때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께 솔선해서 각종 비용,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특’ 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실제 대통령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돈의 전체 규모는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양해를 구하고 이번만큼은 저희가 좀 더 아껴 쓰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그렇게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꼭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실 예산은 꼭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저희의 바람을 예산 확보에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문제인 정부에서도 정원 규모를 상한 개념으로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으

로 인건비 운용폭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여당 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 예산을 한 2억 정도 더 증액되는 안을 내셨다고 하셨지요, 방금?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2억은커녕 있는 예산도 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말씀해 주시면……

○**고민정 위원** 지금 보세요.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지금 차지철 시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저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국민이건 기자건 언론인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다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가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 와서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전광삼 수석 오늘 나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예.

○**고민정 위원** 잠깐만 일어나 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수석이시긴 한데 언론인 출신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예.

○**고민정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언론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잠행취재하는 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가능합니까?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어느 선까지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요.

○**위원장 박찬대** 마이크 대서 발언해 주십시오.

잠깐 멈춰 주시고.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제가 안 보여서요.

○**위원장 박찬대** 이쪽으로, 잘 보이는 쪽으로.

○**고민정 위원**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선 이상은 안 된다?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그렇겠지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기자가 보안구역이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에서 대통령의 행동을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언론인 출신으로 묻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고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호처 차장께 묻겠습니다.

경호처 입장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왜곡된 판단과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서슬 퍼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방금 수석님 답변 들으셨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 고민정 위원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경호행사 중에 신원불상의 인원이라고 쓰셨어요. 신원불상입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 고민정 위원 CBS 기자라고 밝혔잖아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 고민정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최초에 발견된 지점은, 최초는 빼고 두 번째가 기자가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했고요.

○ 고민정 위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경호처 직원이 ‘나는 경호원입니다’라고 밝혔습니까, 아닙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위원님, 그거는……

○ 고민정 위원 안 밝혔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거는 뒷얘기고요.

○ 고민정 위원 안 밝혔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제지 장소와 두 번째 제지 장소를 말하는데 첫 번째 제지 장소에서는 경호원도 기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위원님, 그건 다음 한참……

○ 고민정 위원 경찰청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저희 직원 중에 경찰이 있고 사법경찰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자가……

○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경찰입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기자가……

○ 고민정 위원 경찰이에요, 그 사람이? 경호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지금 밝혀졌으니까 기자이지요. 그 당시에는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를 발각한 겁니다.

○ 고민정 위원 두 번째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역에서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 당시 근무자 입장에서는……

○ 고민정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이게 기자인지……

○ 고민정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시라고요.

두 번째 구역에서는 기자도 경호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힙니다. 맞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 고민정 위원 그러면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는 거는 경호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거는 마지막 상황입니다.

○ 고민정 위원 거기가 경호구역이라고 설정을 하신 걸 사람들에게 인지시켰습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인식시키지 않았습니다.

○ 고민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호구역에 은신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경호구역이 누가 봐도 경호구역인 게요, 울타리……

○ 고민정 위원 누가 봐도 경호구역이라니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취재활동인지 기자인지……

○ 고민정 위원 아니, 거기가 경호구역입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근무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 고민정 위원 거기가 경호구역이에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 고민정 위원 왜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저희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설정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 고민정 위원 그렇게 설정하면 아무 테나 다 설정할 수 있는 거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이 구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도. 다만 그 구역을 설정한 거는 그 구역 안에서 우리 경호관들이 검문검색이나 출입통제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된 겁니다.

○ 고민정 위원 사진 마지막 장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엎드려 가지고 은신해서 촬영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장소가 어디인지 어제 찍어 왔습니다.

찻길가예요. 저기가 숲속입니까? 저기가 은신이 가능한 장소예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찻길을 벗어나서 골프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펜스에 있었습니다, 펜스 밑에.

○ 고민정 위원 펜스가 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기가 숲이냐고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 고민정 위원 저게 숲이에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위원님, 그러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입장에서는……

○ 고민정 위원 아니, 제가 저게 숲인지를 물었습니다. 숲이고 은신할 수 있는 장소냐고 물었어요. 맞아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충분히 은신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자도 12시간 동안 암살 용의자가 잠복하고 있다가……

○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 기자가 암살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위해상황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근무자면.

○ 고민정 위원 그 사람이 무기가 뭐가 있었어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나중에 밝혀지니까 무기가 없었던 거지요.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수상한 활동을 하면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요.

○ 고민정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 임이자 위원 국회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부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예산 심의할 때는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정제된 용어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 홍철호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 뒤에 계시는데, 정무직공무원도 계시고요. 그런데 ‘낯짝’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표현은 쓰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다 그래도 공무원이고 다 존경받는 분들이신데 ‘낯짝’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은 좀 주의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지난번 우리 운영위 국감 때 일부 위원들 발언들 중에서 ‘쓰레기’ 발언도 있었고 오늘 ‘낯짝’ 발언도 있고 그랬는데요.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토론 중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정족수를 고려해서 의사일정 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 경호차장님, 저는 대통령님의 골프 논란 보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됩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정성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정성국 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1000만 인구가 골프를 치고 있고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해야 될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LPGA에도 100위권 안에 우리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요 PGA는 4명이나 있고요.

○정성국 위원 우리가 그때 제 기억에는 1997년에 박세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큰 힘을 얻었던, IMF 시절에 그때 국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힘들 때 사실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박세리의 골프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잖아요. 그 당시 때도, 지금부터 무려 몇 년 전입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전인데도 박세리가 그런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쳤잖아요.

지금은 골프가 많이 대중화가 됐고 여가활동 또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골프를 한번 쳤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무슨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경호처의 입장에서 대통령님께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제지하시는 게 맞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이 기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시는데, 이게 인권 문제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님은 우리 국가원수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대통령님께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경호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 경호처 직원들의 업무수칙 아닙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부산 횟집 건너편에서 사진 찍힌 것도 일부 언론이나 의원님들은 경호 실패라고까지 지적을 하셨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덤불 밑에, 울타리 밑에 엎드려 있는 수상한 행동 하는 사람을 적발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에 CBS 기자가 노출한 거는 그다음에 검거하는 장면만 이렇게 노출하다 보니까 약간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정성국 위원 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지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일본의 아베 수상 그때 피격당할 때 경호가 느슨했다는 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면 정말 1만 번을 경호를 잘하다가도 경호는 한 번만 실수가 있으면 경호처의 책임은 돌아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저는 우리 경호처가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만약 혹 어떻게 보면 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또 좀 과잉했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대통령님에 대한 경호를 그 1만 가지의 하나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경호처가 그렇게 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그 기자를 적발하지 못해서 그 기자들이 숨어서 촬영한 사진이 그다음 날 언론에 나왔다면 아마 지금보다 경호처가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정성국 위원 그 논란의 중심은 경호를 소홀히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경호 실패라고 했을 겁니다.

○정성국 위원 실패라고 나오겠지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문제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가의 원수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대통령님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상사태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경호를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시면서 이 부분이 좀 기자에 대한 대응이 지나쳤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는지, 정말 그랬다면 한번 살펴보자, 돌아보자.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점검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렇지요? 점검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대처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큰 국가적인 문제가 된 것처럼 저런 논란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홍철호 수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오늘 실장님 못 나오셨으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대통령님의 테니스든 골프든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골프외교도 있다고 할 정도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같이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거든요. 그리고 또 골프는 제 경험상 하루 이를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마 어떤 생각 속에서 대통령님의 주말 골프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성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장식 위원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어떤 도사가?

○정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신장식 위원 트럼프 당선을 가르쳐 주셨나?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무슨 트럼프 당선을 예측해서가 아니고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다 하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비웃듯이 얘기를 해요?

○신장식 위원 아니, 비웃음이 나오잖아요. 제 질의 때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정성국 위원 아니, 질의 때 하세요, 질의 때. 자기 질의 때 하시라고.

○신장식 위원 질의 때 한다고요.

○임이자 위원 홍 수석님 답변만 잘하시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임이자 위원 아니, 먼저 그랬어요, 먼저.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하시고요, 두 분 다.

○정성국 위원 쫑알쫑알거리니까……

○신장식 위원 쫑알쫑알? 정성국 위원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쫑알쫑알이 무슨 소리야, 이게!

○정성국 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신장식 위원 참 나…… 쫑알쫑알?

○정성국 위원 체통을 지키세요.

○신장식 위원 쫑알쫑알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체통을 못 지키시는 거예요.

○정성국 위원 쫑알쫑알하니까 한다는 거지.

○신장식 위원 이거 봐, 이거 봐.

○고민정 위원 임이자 위원님이 한 소리 좀 해 주세요.

○정성국 위원 그만하세요.

○신장식 위원 한 소리 좀 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님.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고민정 위원이 할 소리는 아니지요.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신장식 위원 임이자 위원님, 쫑알쫑알이 뭐야, 쫑알쫑알이.

○정성국 위원 자기 발언 때 하세요.

○신장식 위원 참 제멋대로야. 제자들 맨날 얘기하는데……

○정성국 위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 멋대로라고요?

○신장식 위원 제멋대로라고 했어요.

○정성국 위원 그 표현은 더 심하네요.

○위원장 박찬대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말씀하세요.

○신장식 위원 제멋대로랑 쫑알쫑알이 뭐가 다른……

○정성국 위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런데 신장식 위원님께서 홍 수석이 말씀하시는는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 표현이 안 좋잖아요.

○신장식 위원 그래서 쫑알쫑알?

○정성국 위원 본인부터 돌아보세요, 본인부터.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시간 충분히 드리고 나서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말씀들 다 하셨습니까?

○이소영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1분만 주시면 됩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이 지금 말씀 중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하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초치’라는 말은 공사·영사·외교관 등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인데 상당히 징벌적인 초대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을 대통령실로 초치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부적절한 단어였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답 들을게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초청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 ‘초치’가 대통령실 유행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모시는 대통령 조차 미국 대통령에게 초치된다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찬대 충분히들 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정돈된 상황하에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김영선 6선 안 돼. 왜 공천받는지 아시지요? 우리 명 선생님이 황금이 책임지라 했거든. 우리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한 거야' 이런 취지입니다.

김영선 공천해 주라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취에 이어서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녹취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었고 김건희 씨 배후에 명태균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결국 공천개입은 주술가 명태균에게 놀아난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김영선이 공천 안 되었기 때문에 공천개입 아니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이 6선이 안 된 것은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서라는 것이 저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영선이 실제 공천 안 된 것도 이 명태균과 김건희의 공천개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시지요.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일 아침 정보가 샐까 싶어서, 내가.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면 안 돼요. 대통령 일정 공유되면 법에 걸려요. 박완수가 얘기해 준 거라. 이 주식 가만히 쥐고 있으면 6만~7만 원 갑니다',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22년 6월 20일 대통령 방문 정보를 미리 흘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22년도 7월 22일 명태균이 지인과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아마 대통령 잘 거라, 다음 주에. 원래 금액이 12만 얼마짜리인데 사도 못하고 나중에 한번 봐 봐요. 아마 크게 떨 거야. 현대중공업 뭐 터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 방문 정보를 미리 알려 주고 지인들에게 주식을 사게 하고 또 더군다나 창원산단의 경우는 최종 개발 정보를 알려 주고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방문 직후에 주가가 두산에너빌리티는 5.3% 뛰었고 현대중공업은 2.46%가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일정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호재성 정보로 활용하는 것 불법 아니겠습니까?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불법이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정확한 어떤……

○**추미애 위원**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내용은 저희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것, '아마 크게 떨 거야', 두 번째 한번 보세요. 7월 22일 자 '현대중공업 아마 크게 떨 거야. 현대중공업에서 뭐 터질 거거든'. 이것 뭐 기시감 안 듭니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예전에 최은순 씨, 윤석열 총장의 장모입니다. 신한증권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라. 이것—도이치모터스지요—도이치모터스 주식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덜해 놓았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크게 떨어질 건데 내가 미리 파는 거야'라는 겁니다.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라고 회장이 말해 주고 미운,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 그냥 엿먹으라고 해', 이것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 최은순이 했던 역할을 명태균이 전수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렇게 주가조작을, 특정 기업의 호재성 정보로 대통령 일정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음에 대량으로 주식거래가 일어난다면 주가조작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수사대상 아니겠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위원님 말씀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 일정이 미리 알려졌다고 하는 것과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알려 줬다는 것과의 분명한 구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추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늘상 주가조작 세력에게 당했다와 했다라는 결단어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던데 지금도 똑같으시네요.

그런데 저는 그 배후 설계자가, 조력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동조 비서관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비서관 발탁된 것은 다른 특별한 직책상의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주식 전문가입니다. 삼성증권, 씨티은행 트레이더로 일할 때 김건희 씨와 이미 인연이 닿았다라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위원님, 제삼자 간의 일방적인 대화를 가지고 저희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대통령실이 이 사실 전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분은 이미……

○ **추미애 위원** 아니, 됐습니다. 모른다라는 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구속돼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아마……

○ **추미애 위원** 모른다고 하시는 게 차라리 속 편하실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범죄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자체에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아마 나중에 위원님께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2분 주세요.

○ **배준영 위원** 배준영 간사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시작되기 아주 오래 전에 사실 저희 간사 간에 순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를 했는데 그때 정해진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는 중에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현안질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간이 마치 현안질의 시간인 것처럼 진행되는 것은 당초 협의한 거나 이 회의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환기를시키고 위원장님께서도……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취지에 맞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박성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질의는 국회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실이라든가 경호실이 그동안에 그러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견제·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해 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 현안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 각자에게 맡기는 것이지 누가 하라 마라라고…… 누가 그럽니까, 지금? 모든 상임위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들에게 맡겨서 위원들이 하고 싶은 질문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인권위원회 할 때도 보면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잣대와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서 인권, 인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 행정관들이 있습니다. 젊은 행정관들한테 칠상시니, 얼굴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분들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지양해야 되는 거지 칠상시가 무엇이며, 대부분 칠상시라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 텐데 거기에 버젓이 이름 올려놓고 거기다가 젊은 행정관들을 그렇게 주홍글씨를 박아 놓게 되면 앞으로 그분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건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좋은 얘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좋은 얘기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인권과 문제되는 거라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칠상시가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하게 젊은 행정관들 이름을 다 올려놓고, 얼굴 사진 다 올려놓고…… 그분들 인권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준 위원**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한 것 아닙니까?

○**정성국 위원**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왜 나와요?

○**임이자 위원** 지금 제가 사진 올린 걸 얘기하잖아요. 사진 올려놓고 이름 다 올려놓은 걸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박성준 위원** 모든 언론에게 얘기하세요, 모든 언론에게.

○**정성국 위원** 의사진행으로 하잖아요.

○**박성준 위원** 모든 언론에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임이자 위원** 아니, 박성준 위원장님 지금 해보자는……

위원장 아니지, 참. 간사지.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찬대 20초 남았으니까 하세요.

○임이자 위원 제가 지금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용산에서 근무하시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젊은 행정관들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종면 위원 기자들 인권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정진욱 위원 이권이요?

○임이자 위원 뭐요?

○정진욱 위원 이권이요?

○정성국 위원 좀 듣고 하세요.

○임이자 위원 정진욱 위원님, 귀가 어떻게 됐어요? 인권.

○정진욱 위원 이권으로 들려 가지고……

○임이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김성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성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국회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국회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 남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고 동네 가서 표 못 얻고 떨어지면 다음번에 정치 안 하면 되는 게 이 동네 룰이지 남들 질의에 대해서 활가활부하는 것은 서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 칠상시 말씀도 나왔으니까 제가 안 할 수 없는데, 장기훈 선임행정관인가요? 이름도 공개하고 계속 문제를 삼았는데, 인권을 따지시는데…… 아니,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걸린 사람이 그냥 두 달 동안 정직되고 그런 사이에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서 태연하게 복직을 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정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 제가 다 눈치 봐 가면서 그 해당 공무원의 인권을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공복으로서 엄중하게 일을 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선서를 한 이상은 그런 정도의 신분 공개는 다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의 토론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아까 7명의 사진이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김성희 위원님 문제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문제 있다 치더라도……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말할 때마다 끼어드십니까!

○임이자 위원 문제 없는 행정관들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뭐요?

○위원장 박찬대 왜 할 때마다 끼어들어?

○임이자 위원 왜 반말해요?

○위원장 박찬대 뭐냐며?

○임이자 위원 왜 반말하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좀 자제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찬대 예, 자제하세요.

○임이자 위원 하여튼 김성회 위원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그만 좀 말씀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도 많이 참고 있어요.

○임이자 위원 별로 참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왜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반말합니까?

○임이자 위원 박찬대!

○위원장 박찬대 왜?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왜? 왜 자꾸 반말하냐고!

○임이자 위원 지금 내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엄중한 자리예요.

○임이자 위원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았어요, 지금. 갑자기 끼어들고, 매번 끼어들고…… 임이자 위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말 자꾸 시키잖아요! 위원장이 자꾸 말 시키잖아. 그러니까 자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 왜 자꾸 방해해요! 의사진행 왜 자꾸 방해해!

○임이자 위원 위원장이 말 시키지 마요, 그러면! 위원장이 말 시키지 말라고요.

(「그만하세요, 임이자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냥.

○위원장 박찬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정성국 위원님도 그만 좀 하세요.

○정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시지 말고……

○위원장 박찬대 아니, 점잖게 말씀하시다가 왜 그렇게 꼭 다 끼어듭니까?

○서미화 위원 임이자 위원님 보호자예요? 여기는 왜 자꾸 끼어드신대? 이분은 누구세요?

○정성국 위원 정성국 위원입니다.

○서미화 위원 보호자예요?

○정성국 위원 모르셨어요?

○서미화 위원 왜 그렇게 위원장님 말하는 데 자꾸 끼어들어 갖고 말이 더 길어지게 하십니까?

○정성국 위원 본인은 안 그러세요?

○임이자 위원 정치공동체예요.

○정성국 위원 본인은 안 그러세요?

○서미화 위원 조용히 좀 하십시오.

○정성국 위원 본인이 더 시끄러워요.

○서미화 위원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이분들 제일 시끄러워요.

○위원장 박찬대 정성국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권 받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서미화 위원 아주 몰상식하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정성국 위원 그만하세요.

○임이자 위원 지금 조용히 하는데 이름 또 왜 불러요?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 마지막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까 신청하셨지요?

신장식 위원님 신청하셨나요?

○신장식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행정관 이름, 사진 올리는 걸 가지고 임이자 위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고등법원까지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성명과 직책을 다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의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칠상시니 십상시니라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개인 인적사항 확인부터 시작하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대통령실이……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님, 왜 공개하지 않으세요? 대법원까지 기다려야지 가능한 일입니까? 불필요하게 칠상시니 십상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법원에서도 이미 대통령실 직원들 명단과 직책, 어떤 직무를 하는지 다 공개하라고 나왔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자꾸만 억측이 생기고 임이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짚은 행정관들에게 칠상시니 십상시니하면서 언론이 취재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빨리 공개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저한테 질의해 주시고요.

○신장식 위원 공개하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지금 공직에 나와 계신 비서관분들에 대해서 신상과 공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공직의 엄중함이 늘상으로 있다는 것, 그것 국민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 말씀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서로 거슬리지 않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누가 막겠습니까. 다 국민 앞에서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 잘 아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운영 위원회뿐 아니라 국회에서 각 상임위 발언을 할 때는 자기의 정치적 책임하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홍철호 수석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전에 대선 치를 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너무 낭비해 가지고 국가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셨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졌다라고 하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실 슬림화를 약속하신 적이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2431억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했던 2022년도의 1926억 대비해서 26%, 무려 506억이 늘었거든요. 이게 대통령실 슬림화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단순하게 2022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하고 또 2025년도를 비교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의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 감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26%로 오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들이 아직도 추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슬림화라는 약속이 정말 하나도 안 지켜졌던 게 세부 공약 보니까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이 네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민정비서관실이라든지 또 저출생대응기획수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님께서 정책을 해 나가시면서 어떤 것은……

○**천하람 위원** 바꾸신 거지요, 이제 입장을?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한 2년 만에 하시기도 하고 새롭게 신설하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수석님, 어쨌든 대통령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권한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의 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공약을 완전히 여기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세부 공약이든 큰 틀의 공약이든 뭐 하나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좀 국민들께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든지 제대로 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매번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하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제가 볼 때 공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의 어떤 기준점은 그것이 정부, 대통령실의 효율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을 못 지켰다와 또 노력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늘어나서 대통령실의 총비용이 늘어난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됐으면 하는 게……

○**천하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그런데 그렇게 청와대가 비대화돼서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 예산이 26%나 늘어나고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이 세부과제 뭐 하나 달성한 게 없는데 이것은 공약 실패든 파기든 한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도대

체 뭐가 달성됐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로 사실은 정리해야 되는 인물도 정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심각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언급이 됐지만 강기훈 선임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유명해요. 체리따봉 메시지에도 등장하고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시는 김건희 여사 라인에도 들어가고, 음주운전까지 했는데 면직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보도가 약간 엇갈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거취 정리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고 오래 모셔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보도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 면직이나 사직이나 해서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특정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만, 다만 행정관 이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계신데 대통령비서실장께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또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국감 때도 해외 체류 이유로 안 나왔는데요. 이분이 혹시 국감 기간에 공무로 해외 출장 갔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어디 갔다 온 건지도 모르십니까, 수석님은?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약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원래 음주운전 했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정리가 돼야 마땅한데 지금 이 강기훈 행정관이라고 하는 분이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국민의힘 당원 계시판 문제를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담당 격이라서 당장은 못 내보낸다 이런 제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마치셨습니까?

○**천하람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홍철호 정무수석께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보고 싶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답게 정무적 지혜를 갖춘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궁금함인데요. 올해는 대통령 책 몇 권 읽으셨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책이요?

○**강유정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알기에는……

○**강유정 위원** 작년인가 한 권 읽었다고 화제가 됐던 바가 있는데 올해는 몇 권 읽으셨는지 아시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 책을 한두 권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하신 책은 필요하신 만큼 보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몇 권 읽었는지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꼭 알려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으신 것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한번 여쭤보시고 답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강유정 위원** 대통령께서 골프 라운딩,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외교를 위한 골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이전인 8월부터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정무수석 알고 있기로는 몇 번이나 골프 쳤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유감스럽지만 우리 비서실은 대통령님의 공식일정 아닌 것, 특히 주말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요 또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점을 양지해 주십시오.

○**강유정 위원** 정무수석다운 지혜로운 답을 원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곱 차례 라운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중 여섯 차례는 이미 당선 선언 전이기 때문에 외교와 무관해 보입니다.

언론에 나온 것들 하나씩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입니다. 군 장병들의 골프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대통령 골프 쳤습니다. 왜 치셨을까요? 8월 24일 모든 장병들에게 골프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 왜 혼자 골프 쳤는지 그 대답을 정무수석답게 해 주시지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쳤는가까지 물어보시는 것은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고요.

○**강유정 위원** 그러면 정무수석다운…… 이 자리, 국회에 오셨으니까요.

이것 대답 못 하시겠다.

그러면 8월 22일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해서 전 국가가 추모 기간이었습니다. 8월 24일 이 날짜와도 그리 멀지 않은데요. 고위공직자가 이때 골프 왜 쳤을까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위원님께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강유정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태릉골프장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추모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한 추모 기간에 골프 치셨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대통령님이 만약에 골프를 하셨더라도 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그것이 호기심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강유정 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무수석다운 지혜로운 대답을 원했는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가정을 말씀하십니까?

○**강유정 위원** 아니요, 이것 치셨다고 벌써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런데 그 언론 보도를 저희가……

○**강유정 위원**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반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위원님, 저희가 그 언론 보도를 확인해 드린 적이 없고요.

○**강유정 위원** 좀 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북한 외무성의 중대성명 10월 11일, 오풀풍선 낙하 10월 12일, 이때도 대통령 골프 쳤다고 보도됐습니다. 둑하면 안보, 힘에 의한 평화 말하는데 북한 도발 당일에 골프장에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 있을까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좀 그런데요. 대통령님의 골프든 테니스든 이런 스포츠를 통한 외교도 언젠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강유정 위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 점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강유정 위원** 트럼프 당선되는 것 점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요, 제가 그것 단정하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열어 놓고……

○**강유정 위원** 제 질의시간이 짧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당 당원이지요. 홍준표 대구시장, 작년 수해 당시에 골프 쳤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도 같은 논리라면 향후 여러 정무적 이유로 인해서 수해가 나든 말든 그냥 골프 쳐도 되는데, 매우 억울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처음에 외교를 위한 골프라고 말했지만 시점상의 오류로 인해서 거짓 해명이라는 국민들의 질타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무수석께 제가 질타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방 거짓으로 드러날 해명들을 왜 거듭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저도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그 특정한 날짜 이후에 치셨다고 얘기한 것으로 제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해명한 홍보 쪽 라인에서도 대통령님의 골프 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강유정 위원** 그렇다면 정무적 실수이자 정무적 실패라고 인정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걸 꼭 실패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저희로서는 항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의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유정 위원** 대통령의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말이 국민들께 해명과 납득이 될지, 이토록 어려운 민생인데 가능합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대통령님께서는 8년간 골프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시게 된 것은 미루어 짐작할 때……

○ **강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스포츠는 우리가 별로 활가활부할 문제가 아닌 거군요.

알겠습니다.

.....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진우 위원**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입니다.

경호처 차장님, 아까 제가 보니까 특정 언론사 기자분이 경호구역에서 엎드린 자세로 있다가 뭔가 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경호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경호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하는 업무, 수행하는 업무가 똑같고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수칙이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수칙이나 원칙적인 면은 다 동일한 것이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똑같이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진우 위원** 그러면 경호구역에서 조치하는 것들, 특히 아까 설명하시다가 끊겼는데 수풀에서 엎드린 상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분이 그때까지는 신분이 기자 신분인지 조차도 몰랐고 뭘 소지하고 있고 소지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최초에는 진입로에서 우리 본대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찍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제지하고 뭐냐 물어봤더니 ‘일반인이 사진 찍으면 안 되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우리가 본대 차량이 있고 차량 번호도 있고 직원 얼굴 초상권도 있으니까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삭제를 했고 확인까지 시켜 줘서 일단 놔뒀지요.

그리고 라운딩이 시작되고 두 번째 훌에서 숲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언론에는 도주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도주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경찰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한 거지요. 그래서 한 700m 정도 하단 지점에서 검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경호관이 신분을 얘기했고 그들은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 **주진우 위원** 그러면 기자 신분을 알게 된 것은 수풀에 엎드려서 좀 수상한, 경호원들이 봤을 때는 좀 수상하다고 봄서 불렀는데 이분이 그 자리를 피해서 가신 모양이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 **주진우 위원** 그래서 700m 정도 가는 지점까지 쫓아가서 그분의 신분을 확인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경호수칙상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저희가 경호구역을 설정하는데요. 자꾸 말씀 나오는데 경호구역은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고요. 일반 시민이나 국민은 알 수가 없고요. 그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저희 경호관들이 그 경호구역 안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안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모든 경호대상자에 대해서 그 설정을하게 돼 있고요. 이건 전·현직 관계없이 똑같이, 문제인 전 대통령 사저도 동일하게 설정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똑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경호원들은 똑같이 행동하겠네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뉴스에도 양산 사저에서 고성 하는 유튜버, 보수·극우 유튜버도 다 들어내고 그렇게 경호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장, 박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주진우 위원 경호처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한두 해 쌓인 게 아니라 경호수칙에 따른 것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경호라는 게 백 번을 해서 한 번 뚫리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경호원들이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과 연계해서…… 경호처의 전체 예산이 제대로 경호업무에 쓰이도록 이것도 통상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 특별히 늘린 것도 아닌데 이걸 연계해서 예산을 줄인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경호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심각하게 지장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달에 대통령께서 부산의 해작사를 방문하셨고요. 그때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시찰하셨는데 그 당시 야산에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검거를 저희 근무자가 했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자기네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사진 촬영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중국인 유학생이 지난 2년 동안 군사시설, 군사장비를 수차례 수백 장—530장이라고 언론에 나왔는데요—찍어서 중국 공안에 보냈다는 간첩 행위로, 간첩자로 밝혀졌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경호 문제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주진우 위원님 다 마치셨지요?

○주진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성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진욱 위원** 박세리 선수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우리나라 대통령 골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박세리 선수의 골프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해서 잠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예화랑이라는 곳에서 불법 선거사무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화랑 간판이, 저게 지금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11일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옆으로 또 간판도 있었고요. 그런데 18일 날 가 보니까 재건축을 위해서 아마 저렇게 펜스를 치고 예화랑 간판을 내리고,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의 현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명백히 증거인멸의 현장인데 검찰이 조사를 해 놔야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화랑 들어 보셨나요, 홍 수석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진욱 위원** 불법이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어떤 말씀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진욱 위원** 모르시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끝나면 우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 때 감옥 보내면 됩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내세웠고 또 그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감옥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무수석으로서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정진욱 위원** 다른 질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대통령선거 끝나고 패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다섯 번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은순 장모가 남에게 10원도 피해를 입힌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최 씨는 2023년 11월 349억 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로 대법원

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보도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라고 했지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열 사람이 찍은 사진을 네 사람으로 오려 낸 사진에 대해서 조작이다 했는데 골프 쳤냐 안 쳤냐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형사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확대 해석, 유추 해석을 자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엄마와 23억 원을 벌었는데 검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진욱 위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코바나컨텐츠가 찍혀 있는 돈봉투를 김건희 씨가 두 차례나 줬습니다. 김건희, 전 의원 공천개입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로 여론조사해 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게 이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묻고 있습니까?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것을 제가 알 도리는 없고요. 지금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명명백백하게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지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것 또 할 수 있다고 한 것 전체를 부정하거나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분이 대통령직을 계속 맡는 것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정과 상식, 본인이 이야기했던 모든 전제를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즉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 그럴 의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능력도 없습니다.

잠깐만 동영상 뛰워 주실까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정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한 여러분의 한 동료 시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답변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홍철호 수석님 말씀하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의 현장이라는 말씀하고 명태균 씨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 대통령 가족의 사법적 처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는 전부 다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사법적 영역에서, 말씀 그대로 공정과 상식선에서 도이치도 그렇고 디올백도 그렇고 이미 검찰에서 결론을 냈고요. 또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선고를 계속 받고 계시니까 그대로 저는 존중해야 될 건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마무리하셨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위원장대리 박성준** 배준영 수석님.

○**배준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 간에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국회에서 지양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상대방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감옥을 보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발언에, 국회의원은 얘기할 수도 있고 금도도 따지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가셔서 고군분투하시고 이런 가운데에서 감옥을 보내야 된다라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극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뜻은 충분히 다 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좀 환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모든 의원은 자신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게 의원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하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국회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를 출신 강명구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님께 질의할게요.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도 엄청 중요하고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에 대대적으로 하여튼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종의 분풀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 그래요, 수석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강명구 위원**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대통령실 예산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검찰 그다음에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다 대폭 삭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도 내년도 예산, 이게 한 178억 정도인데 문재인 정권 때 184억 원보다 한 5억 정도 줄인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마저도 대폭 삭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회도 200억 정도 되는 특활비하고 특경비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운영위원회에 항목별로 다 어떻게 쓰는지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논리라면 국회의 이 특활비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 그다음에 변동성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 줄이게 되면 대통령실 두 손, 두 발 다 묶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긴축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민주당의 예산 삭감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는데,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대통령실 운영 예산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경비까지 비목별로, 세목별로 전부 다 포함돼 있는 총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예산이 지금 1040억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는 여야가 따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구분 없이 야당 위원님들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이 예산을 지켜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없던 예산을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방만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숨겨 쓴다든지 그런 사례는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명구 위원** 수석님, 그리고 내년 1월 20일이 지나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됩니다. 공화당이 상·하원 의원까지 장악하며 이른바 트리플 레드 상황이 된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어쨌든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저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선도 되기 전에 골프 연습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지금.

트럼프 후보하고 해리스 후보가 박빙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사전적 대응이 골프 치는 걸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문제 삼는 것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저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님들 골프를 치신 분도 계시고 아주 즐겨 치신 분도 계시고 또 전혀 안 하신 분도 계셨다고 들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골프 문제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쟁의 대상이 된 적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의 골프가 일반인들의 어떤 여가활동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골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해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재명 대표…… 골프를 거짓말, 물타기 하기 위해서 대통령 골프 연습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수석님, 대응할 때 그냥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당선될 걸 확신, 예상하고 골프를 연습했다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지 그것을 왜 다른 부분 얘기를……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저희는 숨긴 것도 없고요. 그리고 숨길 생각도 없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데 뭐를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는 것들이? 거짓말을 자꾸 했다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러니까 저희는 숨길 생각도 전혀 없고요. 또 앞으로도…… 숨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길 생각 전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외교에 대통령이 지금처럼 세일즈 외교, 우리 코리아를 방산이나 에너지 이런 수출하는 데 더 힘내시도록 오히려 외교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주시면 우리 대통령도 힘이 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제가 죽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마이크 성량은 좀 낮은 편이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의 마이크 성량은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인데……

○**강민국 위원** 위원장 마이크가 제일 높네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마이크 성량이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정무수석하고 잠깐 말씀 좀 나눌게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통령의 골프나 휴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김민석 위원** 골프 좋아하는 분들 골프 치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께서 조금 전에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으셨다 이런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하루라도 안 치면 못 살겠다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 김민석 위원 잠깐만. 그래서 조금 전에 ‘미루어 짐작하건대’라고 하신 다음에 뒷말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제가 대통령님께 직접 여쭤보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언급을……

○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직접 여쭤봤거나 또는 대통령 골프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수석이 직접 들거나 공유될 정도의 이유, 공유는 없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렇습니다.

○ 김민석 위원 대통령께서 나간 이유는 모르는 거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민석 위원 됐어요. 됐고.

그러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골프를 8년 만에 나간 이유를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뭔가, 8년 만에 안 가던 골프를 갑자기 나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첫째, 국정을 너무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로를 풀었어야 했다.

둘째, 부인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야 했다.

셋째, 외교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다.

넷째, 기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대통령실은 그중에 가장 근사해 보이는 셋째, 외교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좀 다른 질문 할게요.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밴스 부통령의 친구이고 인수위에 책임을 갖고 있고 상당한 실세라는 표현까지 동원되는 영향력이 있다, 국내외 언론에서.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이런 보도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 김민석 위원 이것은 대통령실의 외교팀뿐만 아니라 정무팀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실에 공유되는 내용일 겁니다.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가 사실은, 참 이게 묘한 것인데 우리가 꼭 정보가 높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골프 치면 바로바로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월 22일 부천에 화재 있은 뒤에 있었던 8월 24일인가 25일 골프 그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대선 직전, 대선 후의 골프는 대선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했을 때 이미 최근에도 몇 차례 치신 것을 저희가 알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가 8월 25일 날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고 출국한 것, 혹시 트럼프 주니어 정도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4월하고 8월에 두 번 왔을 때 이 정도는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실에서 파악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대략 대통령한테 정보 보고되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 것은 안 보실에서……

○ 김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돼요, 안 돼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전부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석 위원 알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 김민석 위원 트럼프 주니어가 상당한 실세라는 것은 지금 나올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혹시 트럼프 주니어가 8월 25일 날 나갈 때 대통령하고 만나려는 작업을 조금 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4시간 동안 비행기를 늦추고 출국을 늦췄던 것도 보고받으셨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 김민석 위원 예, 확인 못 하셨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 김민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골프 연습, 기량을 칼고닦은 것을 발휘할 수 있는 미팅 기회가 잡히기는 어렵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글쎄, 저도 언론에서 그러는데 반면에 또……

○ 김민석 위원 아니, 취임 전에 대통령 만날 일정은 없는 것이다, 이것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다 나오는 거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러니까 반면에 또……

○ 김민석 위원 아니, 안 나와…… 그러니까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제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 김민석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마 미국 당선자 쪽에서 스케줄을 금방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민석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제가 그래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예견했거나 또는 그 실세들을 관리했거나 대비했거나 이런 모습은 별로 안 보이는데 설명은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당 측에서 차라리 자신 있게 얘기해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거 확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 점 봤다고. 점 보니까 트럼프 될 것 같아서 4개월 전부터 예상하고 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온 국민이 이해해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렇습니다.

○ 김민석 위원 여기는 원래 점 보는 집단이니까. 그렇게 하시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이번에는 점이 못 맞혔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깔끔하게 하세요, 앞으로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도했던 내용들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담

아서 얘기했던 것이지 어느 날 이후로 골프 연습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 점을 좀 이해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고양갑의 김성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시당초부터 트럼프 대통령 평계 대지 말고 대통령께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 골프를 치셨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사람들 만날 일 있어서 치셨다, 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은 다른 게 아니라 골프를 치는 장면을 들킨 다음에 ‘아이고, 이것 트럼프 때문에 친 겁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얘기가 꼬인 거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7월 14일 날 트럼프 후보가 피격당했을 때 이후로 아마 여러 정보가 트럼프 관련해서……

○**김성회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수석님, 조금 전에 김민석 위원이랑 다 확인하셨는데 수석님 대통령께서 왜 골프 다시 재개하셨는지 모르시잖아요. 여쭤볼 형편이 안 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성회 위원** 아니, 여쭤볼 형편이 안 돼서 모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그 한여름에 만약에 치셨다면……

○**김성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치셨다면이라는 가정을 왜 하세요. 사실관계만 얘기하자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어떤 목적이……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정무수석도 모르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감히 언론에 나서서 대통령이 트럼프랑 골프 치려고 연습했다라는 식의 말을 만들어 냈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골프 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수석님의 답변이 훨씬 더 정답이라니까요. 아니, 그것 뭐……

저도 골프를 칩니다만 골프 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맞습니다.

○**김성회 위원** 저는 그런데 2010년 넘어서 공무원이 된 다음에는 한 번도 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안 쳤는데 그것은 제 사정이고. 그렇게 해서 쳤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트럼프를 갖다 섞냐고요.

정무수석도 모르는 트럼프와…… 쳤다는 이유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 그렇게 해명하는지 모르겠고. 수석님도 골프 치시지요, 테니스를 더 좋아하시지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4일 이후 상황 때문에 아마……

○**김성회 위원** 아니요, 아니요. 수석님 골프……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저희가 추측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 김성희 위원 제발 좀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 골프 치시냐고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이, 그럼요. 칩니다.

○ 김성희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벌어져서 현역 군인이 골프 금지가 된 상황이면 수석님 같은 경우는 임면권자나 국민들 눈치 봐야 되는데 골프를 치실 수 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글쎄요, 그 상황을 제가……

○ 김성희 위원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수석님 골프 치시겠느냐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 김성희 위원 아니, 확인했잖아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친다, 못 친다에 대해서는……

○ 김성희 위원 현역 군인 골프 금지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무수석은 골프 치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정무수석이요?

○ 김성희 위원 예, 수석님.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 저는……

○ 김성희 위원 대통령 잊어버리시고 수석님 치시겠느냐고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골프가 좀 특이해서요. 이게……

○ 김성희 위원 안 치시겠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좀 사회적으로……

○ 김성희 위원 예, 그런 겁니다.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공직자가 그런 경우에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 김성희 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안 좋게 보시는 시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 김성희 위원 예, 그게 대통령도 그렇게 보니까 지금 비판을 당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보통 온그린 할 때 저희가 백스핀을 많이 넣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뒤땅도 치고 또 어쩌다 보면 뗏장도 날리고 하는데 잔디를 치려면, 어쨌거나 골프 치려면 잔디를 깎게 돼 있는데 그 페어웨이에 카트를 몰고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 팀에서 페어웨이로 카트를 몰고 갔다 그러면 한마디 하시지 않겠어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런 사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골프를 얘기하는데 자꾸 대통령 섞지 마시고.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 김성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골프를 치신다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외국에서는 전부 다 카트가 페어웨이로 들어갑

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좀 특이하게……

○김성희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카트도로로 다니지요.

○김성희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외국에서는 전부 다 카트가……

○김성희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골프장 위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뭐 대통령이 지금 페어웨이로 카트 몰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시는지……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러니까 외국은 골퍼 위주고요 우리나라는 골프장 업자 위주로 돼 있지요.

○김성희 위원 경호차장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자한테 확인해 봤는데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낙엽 피하려다 보니까 쪼그려는 앉았는데 엎드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왜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요.

○김성희 위원 아니, 관점이라니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것은 기자의 주장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러니까 쪼그려 있든……

○김성희 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겠다고요.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왜 경찰에, 경호법의 어떠한 부분을 위반해서 경찰에 넘기셨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경호법 5조에 경호구역 안에서는 저희가 검문·검색·출입통제 다 권한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의심적인 행동을 했는데……

○김성희 위원 기자라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김성희 위원 기자라고 확인한 다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것은 나중에 검거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고요.

○김성희 위원 그런데 핸드폰은 왜 뺏으셨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뺏지 않고 본인이 한 겁니다.

○김성희 위원 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사진 지우라고 사진 보자고 하셨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김성희 위원 사진 찍는 행위가 경호에 위해가 되는 행위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럼요. 경호근무자의 포인트도 나올 수 있고 경호정보, 차량번호 등이 다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김성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진 찍는 경우에는 기자だ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앞으로도 빼앗으실 계획이십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럼요. 기자들이……

○ 김성회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기자들도……

○ 김성회 위원 우리나라에서 총기사고에 의한, 그러니까 총기에 의한 대통령 위해 시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호처가 경호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성회 위원 아니, 경호처에서 기자인 게 확인된 다음에 인터뷰한 과정에서 트럼프도 충격전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길래 너무 황당해서 드리는 말……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이미 저희는 박정희……

○ 김성회 위원 제 얘기는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사진기를 들고 갔거나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교전을 떠올리시면서 경호권을 발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 현실 판단은 하셔야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아닙니다.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김성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국 위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수석님!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 강민국 위원 대통령실에서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하시고, 저번에도 제가 보니까, 오늘 사실 운영위 예산 전체회의인데 예산 질의는 온데간데없고 골프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요. 저는 문체위에 왔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착각이 들 정도로 그거하는데, 그런 부분…… 저번에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 관저에 뭐가 있니 없니…… 아니, 대통령 관저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집입니까?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 강민국 위원 그건 국가공유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습니다.

○ 강민국 위원 그리고 누가 또 다음 차기 대통령이 돼도 어차피 그 관저를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당하게 좀 말씀하시고.

오늘 골프 이야기 계속 하는데, 나는 오늘 예산안 준비했다가 좀 다른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대통령이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운동을 하셔야지요. 대통령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대통령님의 골프가 8년 만에 하신 골프고요. 만약에 하셨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정무수석님이 야당 의원님들 모시고 라운딩 좀 가고 그러세요. 그리해야 그거하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골프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도 예산안 질의 했다가 오늘 현안질의 같아서 한 가지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당이 집회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누구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며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것 누가 미쳤는지 한번 내가 짚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헌정 사상 초유의, 운영위원회를 강탈해 가고, 그렇지요? 또 막장 국회 운영하고 또 대표 수사했다고 수사 검사들 무차별로 탄핵소추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특정업무비 506억을 전액 삭감했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9일 날 총궐기를 했는데 이때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명분으로 경비국 관련 예산 전액, 특수활동경비, 특수활동비를 또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경찰 특활비와 특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경찰 특경비만 5486억 원에서 6165억 원으로 12.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감히 어디, 아무래도 궐기대회고 야외에서 투쟁이……

그런데 저는 야외 투쟁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국회에서 사실상 여당이고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외 집회라는 것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우리처럼 108명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 장외 집회한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런데 이걸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발언이라 생각하는데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예산은 또 무차별적으로 증액하고 있어요. 내년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1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예산 2조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아무래도 우리 헌법이 부여해 준, 국민이 수권해 준 권한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위원님 말씀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대통령실을 위해서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예산은 꼭 좀 지켜 주시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지도자가 있지만 저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사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지금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홍철호 수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노종면 위원** 이게 현안질의와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섞일 수밖에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특활비 같은 경우에 사용내역 입증이 안 되는데…… 그 기관의 행정행위에 공감이 되고 지지해 주고 싶으면 누가 삭감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문이 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따져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명태균에게 먼저 전화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게 공식 입장이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당선 후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명태균과 소통한 자체가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명태균 씨와 국정과 관련된 업무, 이와 관련해서는 소통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냥 사적으로만 몇 번 주고받았다, 이 정도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박절하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런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되는데 감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노종면 위원** 본인의 일은 아니니까 추정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겪은 바가 아니니까.

○**노종면 위원** 예.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2021년 11월 상황일 겁니다. 김 여사께서 윤한홍 의원에게 전화했다라는 명태균 씨의 녹취가 나왔고 또 그 직후에 김 여사가 그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해서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전화했으니 그렇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왜 대통령실의 해명이 안 나오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지금 명태균 씨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제삼자들끼리 한 대화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입장 안 낸다는 게 입장인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일일이 입장을 낸다는 것이……

○**노종면 위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 또는 불특정 금액의 돈을 줬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은 안 내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노종면 위원** 그런데 명태균 씨가 공개한 오빠 카톡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득달같이

해명을 했지요, 친오빠가 맞다고?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것은 좀 다릅니다, 위원님.

○**노종면 위원** 그것은 또 달라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여사에 대한.....

○**노종면 위원** 대통령이 술 마시고 명태군에게 ‘마누라, 장모한테 전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술 깐 다음 날에는 미안하다고 했다, 이게 연결되는 그런 대화인데 이런 통화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해명 안 한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요, 아까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사께서.....

○**노종면 위원** 아니, 해명을 안 한다는 입장인데 왜 카톡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공천개입에 대해서만 일부 입장을 냈는지, 선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 때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공개하다 보니까, 아까 그 건은 여사님의.....

○**노종면 위원** 대통령 육성이 나온 다음에 해명하신 11월 7일의 기자회견은 최근인데요. 그게 선후 관계가 틀렸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여사님을.....

○**노종면 위원** 하실 말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홍 수석께서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대통령에 대해서.....

○**노종면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고요.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듣고요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께 요청하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노종면 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대통령실에서는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명태군 씨와 소통한 관련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지금까지는 저희는.....

○**노종면 위원** 존재함을 아는 사람이 정말 대통령실에 아무도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시는 바로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우리 여당에도 있습니다, 존재를 아시는 분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고요.

○**노종면 위원** 없다고 단정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노종면 위원** 어떻게 단정하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대통령님의 말씀을.....

○ 노종면 위원 믿으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믿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된 겁니까, 하는 중입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부속실장은 임명됐고요 이제 부서원들만……

○ 노종면 위원 그러면 아직은 기능은 없는 거예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발령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발표……

○ 노종면 위원 지금 기능이 없는 거지요, 아직은?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발표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종면 위원 그때 기자회견 하실 때 대통령께서 발령 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장순칠 실장님.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부속실장은 이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노종면 위원 지금 근무 중이에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렇습니다.

○ 노종면 위원 오늘 왜 안 나왔어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2부속실장은 오늘……

○ 노종면 위원 됐습니다.

부속실을 설치하면 1년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부속실 예산은 위원님, 따로 책정하질 않고요.

○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비목 중에서 그냥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운용 전이라서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 노종면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호처 차장님!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 강승규 위원 혹시 경호처에 근무를 몇 년부터 하셨어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29년 근무했습니다.

○ 강승규 위원 29년 근무하셨어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근무했습니다.

○ 강승규 위원 노무현 대통령 골프 즐기셨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때도 근무했습니다.

○ 강승규 위원 혹시 태릉골프장, 노무현 대통령 골프 치실 때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것은 확인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 강승규 위원 또 권양숙 여사님도 골프를 즐기셨다고 그러던데 태릉골프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부부께서도 치셨고……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두 분이……

○**강승규 위원** 권양숙 여사가 혼자 나가서도 친구들하고 치셨지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두 분이 골프를 하신다는 거는 언론에 공개되어 있지만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되어 있지요?

동아일보 2003년도 기사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 부부,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경제부총리 등과 3개 조로 해서 골프를 쳤다. 골프를 친 이유는 최근 골프장이 열어붙는 등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어 간다고 그래서 대통령께 골프장에 한번 나가는 게 어떠냐고 수석, 참모들이 권했고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골프를 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께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최근 경기 위축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운영에 대한 불안감, 북핵 사태나 이라크 전쟁 같은 대외적인 특수 여건의 발생, 경제정책의 혼선 등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지 골프 친다고 소비 진작을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전후해서 골프를 친 것이 트럼프 당선자 대비한 것이다, 아니고 그것이 무슨 거짓말한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 오늘 여기 대통령비서실장님 오셨으면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미국 대통령선거 전후에 각계의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 골프를 좀 치시는 게 좋겠다,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비서실장에게 제가 권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왜 제가 굳이 이것을 소개를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골프 칠 때도 골프를 치면 경제가 좀 좋아질 것이다, 소비진작이 된다 이렇게 참모들 견의도 받아들였지만 실제 또 좋아서 치셨고 권양숙 여사도 태릉골프장에 수도 없이 여러 목격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화를 지금 굳이 여기서 소개도 않는데 아주 다양한 비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이 골프를 치신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어떤 외교 준비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짓이라고 하니 이렇게 시각이 다……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요.

정무수석님, 야당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얘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봤습니다.

○**강승규 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방장관을 탄핵하면, 탄핵 소추하면 몇 개월 임기가 정지되지요? 그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기문란 아닙니까? 탄핵소추를 국방장관까지 저렇게, 그 탄핵소추 이유가 여기에서 무슨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일부 선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탄핵소추, 그걸 방치했다고 그러는데 국방장관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국기문란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국기문란이라는 말씀까지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강승규 위원** 아니, 적을 이롭게 하지 않겠어요? 국방장관이 군사지휘권을…… 우리 국방업무를 못 하는데, 임기를 몇 개월 중지하는데 그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국가안보 때문에, 국방장관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승규 위원** 아니, 국가안보가,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인물을 방치하는 것이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이유가 된다면 이것은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거다.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저는 그렇게, 그것이 사유가 돼서 국방장관이 탄핵돼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승규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 **위원장대리 박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정무수석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골프를 이번에 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저는 언론에서 본 바대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모경종 위원** 그렇다면 트럼프와의 외교를 위해서 치신 것은 사실입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모경종 위원** 그렇게 관계자가 인터뷰에서도 직접 말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골프를 칠 수도 있다라고 여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골프 칠 수 있지요, 당연히.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렇습니다.

○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주말에 칠 수 있는, 더더욱이나 저는……

○ **모경종 위원** 그럼요. 골프 치는데 누가 골프를 치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골프를 왜 쳤다고 이야기하는지, 골프를 언제 쳤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정치권에 일찍 입문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의 정치권 선배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무수석님도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중에 골프 때문에 흔히 요즘 표현으로 나락 간 사람들 많이 보셨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렇습니다.

○ **모경종 위원** 그만큼 골프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정서상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렇습니다.

○ **모경종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골프를 치셨다고 하고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 대통

령실에서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게 트럼프와의 외교를 위해서 쳤다. 대한민국의 외교 수준이 골프 못 치면 못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트럼프랑 골프 잘 못 친다고 한들 그게 외교에 불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그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대통령께서 8년 만에 골프를 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러 가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가공을 한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8월 달에도 골프를 쳤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보면 대통령실이 해명 자료 또는 해명이라고 해서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마추어 같습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그 시기에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안 했어야 적절했을 텐데 골프를 친 것도 모자라서 해명 자체가 너무 아마추어스럽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계속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일할 장소가 골프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지금 계셔야 될 곳이 골프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호처 차장님, 경호처 차장님은 대통령이 일정이 잡히시고 어디를 가시면 당연히 따라가고 경호를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임무시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모경종 위원** 그게 골프장이 됐건 산이 됐건 경호처는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안전활동입니다.

○**모경종 위원** 안전활동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모경종 위원** 누구의 안전활동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대통령님을 위한 안전, 사전 안전활동하고……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모경종 위원** 대통령이 위해를 입을 만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게 경호처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취재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일부…… 위해요소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취재는.

○**모경종 위원**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취재는 위해요소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위해요소가 아닙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태릉골프장에서 한 기자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취재활동을 한 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요. 취재는 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취재의 종류는, 경호처 차장님께서 경호의 아주 전문가이신 것처럼 취재의 종류에는 정말 다양한 취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모경종 위원** 경찰들이 잡복근무를 하면서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대놓고 노출된 상태로 직접 가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경호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재를 그렇게 단정 지어서 경호처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관습적으로 취재가 이뤄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 취재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호처에 제가 예전에 국정감사 때 격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알권리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 그리고 보안 이유로 경호처가 여러 가지를 막고 있기는 하겠지만 국민들 역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고 그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언론이고 기자들의 취재입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지점을 너무 과하게 오버해서 이번에 처리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아십니까? 이번에 10월에 입법예고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모경종 위원** 신원조사 권한을 경호처장에게도 부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원조회를 하겠다는 거고요.

○**모경종 위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정원장한테만 부여됐던 신원조사 권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경호처가 해야 될 일이 대통령이 어딘가 가실 때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신원조사 권한을 경호처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외부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안전도 더 중요합니다. 내부 직원 구성원에 대한 판단……

○**모경종 위원** 필요성은 얼마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를 댈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말씀하신 그 내용, 신원조사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런데 국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신원조사 범위가 우리 직원에 한정되는 겁니다.

○**모경종 위원** 신원조사를 그러니까 왜 경호처가 하냐 이거지요. 원래 권한이 있는 사

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인원에 대한 보안성과 책임성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걸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서미화 위원님이신데요. 본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을 바꾸고 싶어하셔서, 요청이 들어와서 먼저 본질의를 5분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시각장애인, 소리로 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원시청 국장께서 언론에 명태균 씨가 창원국가산단 입지제한을 최종 조정하는 데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창원시청 국장 발언 알고 계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랬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서미화 위원** 제가 국정감사 때 제기한 것들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은 명태균의 작품이고요 땅 투기까지 크게 해 먹으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창원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토지 매수·매도 전수조사 국토부하고 창원시 공무원들까지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수석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관계부서에서 저에게 특별하게 뭐 보고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미화 위원** 제가 요청했어요, 비서실장한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뭉개 버리려고 그러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명태균 씨가 구속되니까 더 이상 녹취록은 안 나올 것이고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조 단위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고 있는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판인데 대통령실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국토교통비서관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지금 정무수석님 잘 모르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 정확히 지금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서미화 위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이런 엄청난 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르시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니요, 이 부분은 국토교통비서관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직접 들으시는 게 어떨지……

○**서미화 위원** 저는 비서실장님한테 이 질의 했었고요, 비서실장님 대신 지금 나오신 분이 정무수석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따가 휴식시간 끝난 다음에 말씀……

○**서미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요. 국토부에 다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정무수석까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 하시고 이러니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일이 진짜 만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기강비서관한테 창원국가산단, 창원시하고 국토부 관련 모두 감찰하라고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석님, 감찰 지시했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지금 구속 수사 중이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저희가……

○**서미화 위원** 아니, 수사 중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통령실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서미화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그러면 제출해 주실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구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감찰을 한다는 것은……

○**서미화 위원** 수석님,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 심각성 모르고 관심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우려스럽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니, 그런데 구속되신 분을 어떻게 저희가 감찰을 할 수 있는지……

○**서미화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통령 국민 담화가 국민들 염장만 질러 버리고 천불 나게 하고 이렇게 말았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진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이고 이런 것들이.

제2부속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비서관실 쪽으로 별도로 보내 줄 내용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무 내용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제2부속실에 대해서 인사, 예산, 향후 활동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서 국회와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계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하거든요. 제대로 된 답변이 지금까지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위원님, 그것은 2부속실뿐만이 아니라 각 실에 대한 세부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쓰지 않고 있고요.

○**서미화 위원** 그동안 대통령실이 관저 불법 증축, 십상시 논란 등 온갖 구설수에 이렇

게 오르고도 아무런 각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안보도 아니고 국정운영도 아니고 수사기밀도 아닌데 제대로 된 답변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색만 맞출 제2부속실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면 백발백중 박절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가 제2, 제3의 명태군 또 만날 거라고 보여요. 뻔합니다, 불 보듯.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예산심의에서 아무 소용 없을 제2부속실 예산 다 찾아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위원님, 2부속실이든 부속실이든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서미화 위원** 찾아서 다 삭감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그동안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실 정도에서 문제의식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2부속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예산 세우고 인사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하고 국회에 물어보는 질문에라도 최소한 책임 있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삭감해야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하여튼 꼼꼼하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삭감할 예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질의가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돼서……

○**신장식 위원** 제가 정무위 회의가 있어서 저까지 좀……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제가 신장식 위원님까지 드리고, 신장식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저도……

○**위원장대리 박성준** 신장식 위원님까지 하시고 하시지요.

○**신장식 위원** 회의가 있어서……

○**위원장대리 박성준**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김성훈 차장님, 제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에서 당부를 드렸어요, 과잉경호 하지 말아야 된다. 법안은 통과시키는데 꼭 이것 말씀드렸는데……

29년 경호실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신장식 위원** 그 규정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고 사람이 크게 많이 바뀌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신장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의사도 입틀막, 대학원생도 입틀막, 국회의원도 입틀막, PPT 보시면 기자들도 입틀막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규정과 경호처 식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를 받는 대통령께서 이런 입틀막 경호를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규정과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왜 이 정부에 들어서는 이렇게 입틀막이라고 평가되는 게 많이 나오느냐. 또 그러면 저희들이 법안과 예산을 가지고 그런 입틀막 경호 못 하게 하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경호법 위반을 주장하셨어요, 이때 CBS 기자. 그렇지요? 그런데 건조물침입죄로 경찰에서……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디올백, 코바나컨텐츠 이때 최재영 목사 주거침입인데 ‘경호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경호는 안 뚫렸다’ 이렇게 국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그러면 주거침입인데 경호는 안 뚫린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호 실패 아닙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저희가 보니까 경호법이 경호활동에 대한 근거는 마련했는데 그 위반자나 예외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좀 부족했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것 잘 모르셨네. 그러면……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입법 미비입니다, 보니까.

○**신장식 위원** 입법 미비예요? 그런데 왜 미비된 입법도 파악도 못 하고 경호법 위반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그렇게 경찰서 가서 얘기하셨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로 밝혀진 그 사람을 검문검색을 하거나 출입통제한 것은 법에 의해서……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위반, 대통령경호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셨네요. 앞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어느 부분을……

○**신장식 위원** 대통령경호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이유를 입법 미비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처벌규정이 없는지, 입법자의 의지가 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가서 바로 대통령경호법으로 처벌할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부터 잘 숙지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는 못 찾아내면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직권으로 달라 이런 얘기 하셨던데 시계에 숨겨져 있는 몰래카메라를 잘 찾아내는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처에서 오히려 잘 아실 것 같아요. 8월 24일, 8월 31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대통령이 골프장 간 날이라고 언론에서 특정한 날들입니다.

7, 8회 이상 경호행사가 태릉CC에서 있었지요, 8월 달부터? 이 정도는 뭐 얘기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이미 말씀드렸지만 확인시켜 드릴 수 없고요.

○**신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이 골프장 자주 간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신장식 위원** 예.

다음, 4명이 골프 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4명이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혼자 치셨어요, 동반자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동반한 날도 있고 민간인이 동반한 날도 있다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확인시켜 드릴 수 없지만 영부인님은 골프를 못 치십니다.

○**신장식 위원** 영부인은 없었다. 그러면 다른 민간인 동반자 있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민간인 동반자 이런 것들이……

○**신장식 위원**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기자에게 동반자를 봤느냐고 지속적으로 물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질문 하셨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신장식 위원** 현장에 안 계셨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신장식 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호처에서 동반자를 봤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집요하게 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동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밟히겠다고 얘기하시겠지요. 그런데 누구랑 쳤는지 조만간, 시간 문제다,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렇게 추측성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신장식 위원** 제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신장식 위원**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대통령 혼자 치셨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위원님, 그렇게……

○**신장식 위원** 대통령 혼자 치셨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자꾸 민간인 동반자 말씀하시는 테요……

○**신장식 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까지만 하세요, 추측성으로 얘기를 하니 마니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사실관계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려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언론에서는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기사화해 가지고……

○**신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처 경호행사 지원 예산 관련해서 삽감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보충질의 시간을 좀 당겨서 쓰겠습니다.

경호처 예산안 보니까 2024년도 예산 대비 43억 800만 원 증액돼서 305억 1100만 원 편성됐어요. 이 중 특수활동비 6억 5000만 원 증액돼서 82억 5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맞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신장식 위원** 그런데 2024년 1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공사물품 구매, 수의계약 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개하라는 1심 판결문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끝났습니다.

○신장식 위원 기억하시지요? 이런 판결문이 있는데 내역을 공개를 안 하세요. 우리는 내역을 모르는 채로 특활비 증액 예산을 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기밀 유지가.....

○신장식 위원 내역을 공개를 하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경호 등에.....

○신장식 위원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해서 공개하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공개하라는데 공개 안 하는 내역을, 특활비를 우리가 왜 증액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신장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보충질의 거 쓰면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상임위 예산심사가 계속 이어져서 계속 발언을 이어 가기를 원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두 시간이 넘어서 저희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신장식 위원님, 마무리된 거지요?

○신장식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활비 예산내역 공개하지 않으면, 1심 법원의 판결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 의견을 저는 예산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신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가겠습니다.

다들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을 15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시민사회수석께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예.

○윤건영 위원 마이크 있는 쪽으로..... 그 자리에서 마이크 잡으셔도 되고요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 시민사회수석이시다 보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지요?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예.
- 윤건영 위원 전광훈 목사도 자주 만나시나요?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예, 가끔 뵙습니다.
- 윤건영 위원 가끔 봐요?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예.
- 윤건영 위원 어느 정도로 자주 뵙니까?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글쎄요, 그건 뭐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서요.
- 윤건영 위원 예?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서요.
- 윤건영 위원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 (영상자료를 보면)
- 유튜브 방송인데요. 진행자가 전 목사한테 묻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와서 조언을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다음 보시면……
- 영상으로 틀면 좋을 텐데 영상을 틀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건데요.
- 안 되니까 그냥 할게요. 이것만 띄워 놓으세요.
- 전광훈 목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 ‘시민사회수석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면서 ‘내가 전화하면 바로 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와서 이것저것 막 보고도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 저는 시민사회수석께서 여러 분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바로 가지는 않고요. 저도 하는 일이 있는데요.
- 윤건영 위원 예?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전화한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저도 할 일이 있는데요.
- 윤건영 위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광화문을 목사님이 지켜 주셔서 촛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석께서 하신다고 해요, 전광훈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주로 듣고 옵니다.
- 윤건영 위원 예?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주로 듣는 편입니다.
-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 전광훈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석께서……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그건 전 목사님 말씀이시고요.
-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아니,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요.

○윤건영 위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으면 전광훈 목사가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네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예.

○윤건영 위원 시간 끊어 주시고요.

정무수석이 대신해서 왔으니까, 원래는 비서실장한테 하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시면 수석이든 비서실장이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격이라 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시민사회수석도 거기에 맞는 격에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용산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전광훈 목사가 부른다고 쪼르르 가서 마치 부하직원처럼 보고하고 하는 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까 강기훈 선임행정관에 대해서 말을 분명하게 못 하시던데 지금 현재 근무 중인가요, 용산 대통령실에?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인적 쇄신 차원에서 그만두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행정관이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 관할하고 있고요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적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건영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이 홀딩하고 있는 거네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홀딩이 아니고 지금 비서실장님의 통제하에 다 있는 사람들이고요.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홀딩하는 거지요. 쇄신하겠다고 언론 플레이까지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쇄신하겠다고……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 사람은 이미 중징계를 받았고요.

○윤건영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이미 중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 아니, 계속 다니겠네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무적 판단이지요.

○윤건영 위원 정무적…… 말을 왜 이렇게 돌리세요? 일개 행정관 처신에 대해서 수석께서 말을 돌리시면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일개 행정관이라고……

○윤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혁신처로 정계의결요청서라는 걸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강기훈 행정관이 음주 0.12%로 해서 1.3km 운전했다라고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것도 사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원 자료에 보면 강기훈 행정관이 5km가량을 운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용산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1.3km가량 운전했다고 허위로 기술해서 인사혁신처로 보냅니다. 왜 그렇게

일개 선임행정관을 감싸줍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글쎄요, 제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윤건영 위원** 확인되지 않다니, 여기 법원 자료가 있는데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요, 1.3km로 인사혁신처 쪽으로 보냈다는……

○**윤건영 위원** 1.3km는 용산 대통령실이 인사혁신처로 보낸 자료이고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했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왜 차이가 생겼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왜 생겼습니까? 그건 감추려고 했고 숨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실이 일개 선임행정관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쩔쩔매고 처신에 대해서 비서실장한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강기훈 선임행정관을 정리하라라고 요구했던 게 장안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리 못 하고 있어요. 수석께서 그러시잖아요, 비서실장이 적이 판단하겠다고. 이런 나라가 어디 기강이 제대로 섭니까? 음주운전 해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지금 다섯 달 동안 고위직 관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별정직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인사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강제로 어떻게 없는 법을 만들어서 가중처벌한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건영 위원** 수석님, 그런 이야기 하실 줄 알고요…… 그리고 용산에서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임 정부 비교 많이 하시는데 전임 정부에서는 똑같은 알코올 혈중농도가 나왔을 때 바로 그날 해임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건 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관과……

○**윤건영 위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석님,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경찰서장도 면직하는 데 이삼 일밖에 안 걸렸어요. 또 제가 다른 자료 대 볼까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두둔 한다든지 감추려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건영 위원** 지금 감추고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 자료하고 인사혁신처 자료 다른 것에 대한 소명도 안 되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게 들리신다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진 위원** 홍철호 정무수석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형량이 과하다’ 또 ‘나는 죽지 않는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온 겁니다.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해 왔던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켜봤습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는 흔들렸고 국회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반성하거나 속죄하기는커녕 이제 사생결단의 각오로 반헌법적 행태를 이어 갈 태세입니다. 국회는 더 격한 방탄의 장이 될 것이고 국정은 흔들리고 민생은 더 어려워질까 우려됩니다.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비서진들께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대통령을 더 잘 보필하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민심의 비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대통령실과 경호처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개 예산의 규모를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보면 정무수석님,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약 5억 정도 저희가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평균 184억보다 5억 4000만 원이 더 적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실제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야당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개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무수석님,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공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없었습니다. 지난 정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께서도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요구할 때 ‘국가안전 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비공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은 계속 공개를 주장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법과 그리고 보안과 관례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처 예산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호처의 예산도 제가 죽 보니까 2017년도 142억에서 계속 줄어서 작년에는 122억이었는데요. 경호처 차장님, 지금까지 경호처 예산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과도하

게 올린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내년에……

○**권영진 위원** 내년에는 그런데 137억 8300만 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권영진 위원** 약 15억 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들은 항구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내년도에 특수한 케이스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내년도에 APEC하고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한시적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진 위원** 그 점을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권영진 위원** 대통령실도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인데 아끼고 아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수사관들의 야근과 잠복근무 때 밥값으로 쓰이는 특수업무경비 506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과 민노총 등의 불법 장외집회를 저지하는 경찰에 대해서 보복성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 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범인을 잡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 시에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무수석님,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경찰의 특정업무경비는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무수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습니다. 손발이 묶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자기 봉급 가지고서 활동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권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님 계셨군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홍철호 정무수석님, 지난 국감 때 한준호 의원님이 얘기를 했던 건데 23년 10월 6일 날 김건희 여사가 귀빈 항공기 타고 제주도 방문한 것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윤종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아 보니 항공기가 공항에 이착륙하면 관제탑 근무자가 항공관제업무일지에 항공편이나 호출부호 등 항공식별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만국 공통 사항이라고 정부 답변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23년 10월 6일 김건희 여사가 이용한 귀빈항공기 항공관제업무일지에는 어떤 식별정보도 없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의원실이 국토부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왼쪽이 윤석열 대통령이 탔던 24년 모월 모일 관제탑 항공관제업무일지상의 항공식별정보 기록입니다. 중간에 파란색 네모박스 돼 있는 것 보시면 보안상 세부사항, 구조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저희가

ABC 이런 식으로 기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행사항공기라고 돼 있고 콜사인, 호출부호, 항공편, 행선지, 착륙시간, 이륙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봐 주십시오. 오른쪽은 한준호 의원이 이야기했던 2023년 10월 6일 날 김건희 여사가 탔던 관제탑 항공관제업무일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공식별정보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귀빈항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타고 가신 것은 행사항공기, 여사님이 타고 가신 것은 귀빈항공기 이렇게 돼 있고 항공식별정보가 돼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저희가 알아 보니까 군사·대북 관계에 대한 기밀사항인 군용전폭기 이착륙 기록 역시 항공관제업무일지에 전부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가 탄 귀빈항공기만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정상적으로 기록 남기게 돼 있고 남기고 타도 되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이례적이라면 하여튼 무슨 사유인지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꼭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한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탄 귀빈항공기는 가장 기본인 비행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대통령 전용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호처장님, 맞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윤종군 위원** 제보받은 대통령 전용기 운항기록과 항공관제업무일지를 대조해 봐도 딱 맞더라고요, 제가 자료 대조해 보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탄 것만 비행계획서도 없어요. 제보가 맞다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탔으면서도 대통령이 탑승해도 기록해야 하는 항공식별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비행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도 누릴 수 없는 특혜와 의전을 누린 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동 편의가 대형 항공사고 예방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무수석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윤종군 위원** 여기 자료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부 자료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확인해서 위원회와 저희 의원실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 나왔지만 대통령님이 잔디밭을 카트로 달렸다는 것 언론 보도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윤종군 위원** 그 보도 사실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윤종군 위원 확인해 줄 수 없어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 윤종군 위원 그런데 아까 ‘외국은 잔디밭도 달린다’ 이런 얘기도 신나게 하시던데……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외국은 그렇습니다.

○ 윤종군 위원 외국 얘기하시던데 외국에서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200km면 우리나라에 와서 200km로 달려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룰이 있는 거잖아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나중에……

○ 윤종군 위원 우리나라 와서 하면 우리나라 골프장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나중에 첨부해서 드렸는데, 부가해서 드렸는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골프장 경영자 측 입장에서 경영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윤종군 위원 됐습니다. 그런 잘못을 보고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이게 뭉니까, 골목대장도 아니고. 사전 연락도 없이 당일 날 와서 예약 손님들 다 몰아내고……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 부분은 위원님, 위원님도 보시지 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윤종군 위원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위원님도 사실 그걸 보시지 못한 상태에서 골목 대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 윤종군 위원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을 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전 연락도 없이 당일 날 와서 예약 손님 다 몰아내고 골프장 카트로 도로 벗어나서 잔디밭을 마구 달리고, 정상회담 때 트럼프 태우고 골프장 달리는 연습까지 지금 하는 겁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관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입만 열면 보안, 보안 하는 게 대통령실 여러분들입니다. 무허가 업체에 공사 맡겼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 하도급 주고.

여사님은 비행계획서도 없고 관제일지도 안 쓰고,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행태가 총체적인 불법·탈법 천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입니까? 문화강국 코리아에 맞는 일이에요?

질문 아닙니다.

대통령실 참모들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대통령 부부 될 수 있도록 직언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관저 자체가 전임 대통령들이 계셨던 청와대 관저하고는, 모든 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렇다고 불법·탈법, 계약서 없이 설계도 없이 해도 돼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불법·탈법이 있었다는 것도……

○**윤종군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을 지적하면 좀 인정을 하세요. 불법·탈법 감사원에서 다 걸린 건데 그것을 항변하려고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다 해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윤종군 위원** 해명이 됐으면 감사원에다 얘기하세요, 왜 이런 잘못된 감사를 했냐고.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저희가 시정요구를 할 건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제대로 좀 보좌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홍철호 정무수석님, 골프 얘기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대통령이 골프 치시는 게 뭐가 문제냐 하셨고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박세리 선수까지 소환하고 계시는데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저는 호기심은 국민들이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이 골프를 통해서 친교를 하실 준비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쁘게 보는 측면보다는……

○**이소영 위원** 짧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좋은 관점에서 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정말로 눈치 없고 물색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영상자료를 보면)

확인되고 제보 있는 것 기준으로 12주간 7건인데 해외순방과 추석연휴 기간을 빼면 거의 매주 토요일에 즐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 열심히 잘 하다가 건강 챙기러 가신 거면 당연히 노 프라불럼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골프 일정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정권 지지율이 왜 20%도 안 나오는지 알겠다, 정말 물색없는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골프 일정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10월 31일에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다고. 대통령의 육성 공개 처음이라서 국민들이 기겁했어요.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겠지요? 특히 이 녹취 공개 전까지는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 명태균 만난 적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 통화가 공개된 거라서 대통령 거짓말이 밝혀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날인 11월 1일은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져서 집권 후 최저치

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와중에 그다음 날 어김없이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가나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러니까 골프라는 스포츠를 가지고 대통령을……

○**이소영 위원** 역대 최저치 지지율이 나왔다고요, 전날.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요, 대통령을 추정……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파 말씀하시고요.

11월 7일에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셨어요. 국민들께 허리 숙여서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모든 게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다, 국민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를 후에 어김없이 골프를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도자면 한동안 며칠이라도 뛰든지 자제하고 자숙하는 게 상식인 거지요. 공직자가 논란을 일으키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곧바로 평소처럼 술 먹고 골프를 친다? 이것은 되게 생각 없고 물색없는 행동인 거예요,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정상적인 멘탈이면 공이 맞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수석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보상 이슈가 있는 기간에는 고위공직자들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이런 것 안 하는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참사나 비극이 발생해도 며칠은 음주나 골프 참습니다, 당연하게. 골프 친다고 전쟁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참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합니다.

슬라이드.

오죽하면 국민의힘 윤리규칙에도 명시돼 있어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국민적 슬픔에 잠겼거나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선약이 있어도 골프 치지 말고 깨라는 게 국민의힘 윤리규칙에도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오래된 사회적 합의를 깨신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에 골프 금지령 내려져 있는데 골프 쳤고 부천 호텔 사상자가 20명에 가까운데 추모 기간에 골프 쳤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슈,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 침투 이슈 같은 게 계속 터져서 현역 군인들은 골프와 술 다 금지돼 있는데 국군통수권자는 골프가 죄냐고,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보수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보수가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술 마시고 골프 치고 할 일 다 하고 그게 무슨 죄냐고 국민들한테 따집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쓸데없는 변명과 거짓말이 문제지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게 11월 6일인데 8년 만에 치는 거면 레슨을 다시 받지 무슨 바로 3일 만에 필드를 나갑니까. 이런 해명 태도가 정말로 최악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슬라이드.

대통령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 며칠 전 담화에서도 365일 24시간이 진짜 너무 어깨가 무겁다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평일에는 매일같이 술 드신다는 것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평일에는 술 마시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도대체 일은 언제 한다는 건지, 국민들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365일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음주와 골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가 단순히 공직자가 골프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대통령께 시정하시도록 충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석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위원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평일 날은 술 마시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소영 위원** 술 안 드세요, 평일 날?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이것은 국민들께 우리 대통령을, 아주 이미지를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그렇게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 평일에 매일같이 술 안 드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소영 위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무슨 추측성 얘기를 해도 이소영 위원님께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술을?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런 말씀은 제가 좀 과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은혜 받자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옥하면 은혜 받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지금 은혜 받자고 질의하는 것 아니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대통령께 충언을 드리라고 제가 수석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기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이소영 위원** 대통령이 이렇게 물색없이, 눈치 없이 국민들의 정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깨면서 본인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 것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소영 위원** 대한민국에 해로울 거라고 국민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수석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이소영 위원** 본인이 판단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대통령께서는 자기 판단 정확히 하고 계시고

요. 그런 판단하에서 그 더운 여름인데도 연습을 하셨다면 아마 목적이 분명해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8년 동안 안 하신 것을 갑자기 여름에 하고 싶어서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선뜻 이해 안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말은 또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할 말도 못 하고 아닌 것 까지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애쓰십니다, 수석님. 애쓰십니다.

.....  
○위원장 박찬대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호 수석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위원장 박찬대 이제 간사님 두 분 주질의 남으셨는데요.

먼저 박성준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홍철호 수석님 수고 많으신데요.

홍 수석님은 윤석열 정권에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큰 기여를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

○박성준 위원 큰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됐겠지요?

우리가 큰 기여를 한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박성준 위원 킹메이커라고 하지요? 킹메이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박성준 위원 아니, 제 말을 좀 들으세요.

큰 역할을 한 분들을 킹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국민입니까? 저는 주도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였고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였던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여러 지도부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킹메이커였다.

그런데 이 킹메이커가 수면 위에 있는 킹메이커와 수면 아래에 있는 킹메이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모르는 킹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2년 반 반환점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나타나지 않아야 할 킹메이커들이 2명이 나타난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타나서 국정을 총괄하고 있고 그 뒤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위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늘이 도와서 천운이 될 수 있지만, 그 천운이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위기를 몰고 오는 불운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불운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액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 수석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박성준 위원 정권의 창출을 했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을 관리하지 못한 대통령실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태균 씨 관리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성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온 겁니까, 명태군 씨를 통해서?

하나 더 질의를 좀 하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명태군 씨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 박성준 위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는 누구입니까? 킹메이커요. 그것도 분석을 안 합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

○ 박성준 위원 몇 사람을 꼽더군요.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를 킹메이커로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꼽고 있고요. 또 하나, 비서실장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수지 와일스, 정치 컨설턴트예요. 이 정도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킹메이커가 누구냐? 트럼프 주니어라는 것 아니에요.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왔다 갔습니다.

○ 박성준 위원 그냥 왔다 갔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우리 실무……

○ 박성준 위원 그냥 왔다 갔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 트럼프의, 그것도 가장 강력한 킹메이커라고 들 수 있는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4월과 8월에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8월에 온……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부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훈 목사님 만나시는 자리에 우리 시민사회수석도 같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한적이지만 그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준 위원 제한적인데, 그랬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트럼프 주니어는 J. D. 밴스 부통령을 지목할 정도로 상당히 실세였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답답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미국 대선의 예측을 누구로 했느냐면…… 김태호 안보차장인가요, 기자들과 만나서 차기 미국 대선의 대통령은 해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못 들었습니다.

○ 박성준 위원 못 들었어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 박성준 위원 기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김태호 차장하고 만났던 기자들이.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모든 분석가들이라든가 이 윤석열 정권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주니어 와도 ‘쟤는 제쳐. 만나지 않아도 돼’ 이 정도 대접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권에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돼 가지고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 아닙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저희 자체……

○ 박성준 위원 그런데 수석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들어 보세요.

정확한, 국가를 운영할 정도 되면 주요 인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 어렵

고 나라 국정 난맥이고 대외관계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많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안 느낍니까?

아니, 야당만 이렇게 질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야당의 목소리만 크다. 대외에서, 장외에서 집회하니까 그냥 무시해 버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정을 제대로 이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지금 난리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고요.

○**박성준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저희 정부에서도 각종 정보 보고들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일례를 들면 7월 14일 피격 이후 지지율 올라간 것에서부터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주식이 50% 폭등한 것에서부터 다 저희가 정보를 정확히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도 그런 판단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 저희라고 해서 야당 의원님들만큼…… 들은 정보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준 위원** 수석님, 제가 그냥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윤석열 정권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통치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나중에 간사님께 제가 따로 가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이 스테이트크래프트가 뭔지, 그냥 검찰에서 잡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해서 다 때려잡으면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검찰이, 정부가, 더더욱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검찰 출신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조심하고 계시고 아예……

○**박성준 위원** 그래서 수석님, 오래 정치하셨잖아요. 다 부메랑이 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남용하지 말라고 임기 5년 나눈 거예요. 임기 동안 자기 칼다 쓰다가 그 칼에 베이는 게 권력입니다.

통치술 제대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기조 전환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총무비서관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쪽이 제가 좀 잘 보여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위원님.

○**배준영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텐데요.

총무비서관님, 특수활동비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보다 42억, 34% 정도 삭감됐지요?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렇습니다.

○ 배준영 위원 그리고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4년 연속 동결했지요?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 배준영 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조직, 현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동결하셨지요?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조직, 현원 증가보다는 공무원들의 기본급과 호봉상승분이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체 흡수하는 방법으로 4년 연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홍철호 수석님,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고위공무원 월급을 반납해야 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어떤가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여태까지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비서관 이상은 급여의 1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 배준영 위원 비서관 이상은 급여의 10%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고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 배준영 위원 그러면 비서관 이상이면 대통령도 포함된 겁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그렇습니다.

○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차장님, 이것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면, PPT를 보시면 북한 위협 및 테러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주요인사 암살, 무인기 테러 가능성에 있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호 실패라고 봅니다. 누가 아웅 산 묘소에 먼저 와 가지고 거기 제대로 점검만 했으면 이런 정도의 국난이 안 일어났을 텐데요.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경호환경의 특수성이 있는데 좀 극단하고 과격한 행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PPT를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협박에 칼까지 든 시위자, 김정숙 여사 직접 경찰서 찾았다’, 저분이 이렇게 메가폰만 듣 것 같지만, 평범한 시민같이 보이지만 칼을 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경호구역을 확장했다. 모의 권총, 커터칼 위협이 있었다’, 이런 것도 김영삼 정권 이후로 계속 계셨다니까 잘 아실 겁니다.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 배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라진 대외경호활동이 있는데 아베 총리가 비운의 총탄인가요, 그것을 맞고 돌아가셨고.

기시다 총리 앞의 저게 폭탄입니까? 뭐가 떨어지지요?

○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배준영 위원**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경호 실패 아닙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잘 알려졌다시피 트럼프 유세장에서 총기 소지자가 체포됐습니다. 세 번째 암살 시도를 막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위협요소가 있고 이런 과격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고 국내외적으로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수풀 속에 응크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람을 만약에 경호처에서 봤는데 거기에 대처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위해요소가 발생해 가지고 사고로 터졌다, 이것은 정말 큰일 아닙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선량한 민간인일 것이다, 기자같이 아무런 위해 의도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해 가지고 그분을 저지하지 않으면 그게 경호수칙에 맞는 겁니까, 도대체?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경호처는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잡아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검거해서.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윤 대통령이 부산 횟집에 도열했는데 ‘카메라 말고 총이면 대형 사고’, 그때 정청래 의원이 ‘윤 대통령 미워하고 좋아하고 떠나서 문제다’, 조웅천 의원님이 ‘명백한 경호 실패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위해요소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동일하게 대처하실 거지요? 어떻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려면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홍철호 수석님 그리고 안보실 제3차장님 그리고 경호처 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사실 2025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 하는 속에서 골프 얘기하고 경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렇게 골프 얘기를 할까라고 참…… 또 제가 심한 얘기하게 되면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뭐라 하실 테니까 이쯤 해 두고.

어차피 우리 국가의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외교 관련돼 가지고는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한미일 협력관계를 굳건히 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고 거기에 국익 우선으로 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 관련돼서도 우리가 원전 수주뿐만 아니고 K-방산 관련돼서 정말 잘하고 있고 역대 대통령들께서,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나가서 이렇게 수주를 해 온 대통령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지만 제가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민주당 정권 때 대통령들이 외국 나가셨을 때는 경제인이나 여러 분들,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일이 연결되거나 계약이 성사된다거나 이런 걸 별로 못 들어 봤다고 그래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부터 경제사절단이나 또 여러 분들 모시고 나갔을 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소야대, 우리가 정치를 잘 못해서 아니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심한 회초리를 맞다 보니까 여소야대 형국에서 마치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펌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제대로 잘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25일 또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똘똘 뭉쳐서 잘하면 된다, 대통령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봐 줄 것이다. 대통령은 잘하고 계십니다.

예산, 우리가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정신 가지고, 배준영 간사 잘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무수석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위원 뭘 한 말씀을……

○임이자 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시는 바대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에 후반기 민생 역점을 두시기로 또 하셨고요. 4+1 개혁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가시적인 결과를 보시면, 그러시면 이제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이자 위원 열심히 합시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혐의들에 대해 지금은 대통령의 특권으로 기소되지 않지만 임기가 끝나면 범죄에 대해 수사받고 감옥 갈 수 있다 하니까 싫으시지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제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쌓여 있지만 그래도 과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 말이 과하다고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 정치의 문제를 풀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쪽만이 아닌 정치상대방에게도 적용하는 것, 정치상대방을 무조건 범죄자로 만들고 잡아들이라 하고 끝까지 죽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홍철호 수석님, 헌법재판소 결정문 혹시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어떤 결정문인지 말씀해 주시면……

○**정진욱 위원** 아니, 어떤 거라도요. 어떤 거라도 혹시 결정문 읽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과잉금지의 원칙일 겁니다, 아마.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을 읽더라도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 저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문제점이 있어도 그 대응은 과하지 않게 하라, 이게 과잉금지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과하게 묻지 않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과잉금지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모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상대를 죽이면 그것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했지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깅패지 검사입니까?’ 그게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 보복이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의 대전환을 할 기회 아직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들은 말씀 그대로 잘 전하시고 제 말씀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위원님, 과잉금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저희 대통령비서실은 행정관부터 대통령까지 오전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귀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근무하면 오죽하면 직업병 얻어서 나간다고 할 정도로 과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칭찬받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감옥 간다고 하시는 말씀은 금도를 넘어서는 말씀 아니신가, 그야말로 과잉금지 원칙에 입각해서 위원님께 제가 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들을 말씀은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대통령에게 감옥 간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국민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제가 너무 가까이에 앉아 있어서, 지금 수석님 답변 보니까 제가 귀가 너무 간지럽습니다.

대통령실이 참모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받아 갈 수 있습니까? 근로소득자에게는, 노동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이대는데요. 대통령실이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로 기능하는 사람이 따로 나타났어요, 명태군. 그 전에는 건진, 천공 이러더니 이제 명태군이 나타났고 여사님이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민망하지만 명태군이 윤석열 대통령 설명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술 쳐먹으면 안 자고 술 안 먹으면 자고 술 먹으면 말 많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토요일마다 국가안보가 위기든 또는 을지훈련을 하든 또 국가비상사태를 걸어 놓고 군 장성한테 골프를 못 치게 자체령을 내리든 아무 상관 없이, 국민이 시국 집회를 하면서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든 말든 주말 골프까지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야말로 대통령께서 국정을 포기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 뜨거운 여름에도 트럼프 맞이로 골프 연습에 열중하는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시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귀가 간지립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제삼자의 녹취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술 쳐먹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소영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노종면 위원 질의하시는는데 왜 그러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5선 의원님까지 하시면서 말 좀 가려 가면서 하세요.

○위원장 박찬대 끊어 주세요.

○노종면 위원 질의하시잖아요, 좀.

○임이자 위원 제삼자의 녹취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아까 위원님 질의할 때 안 끼어들었잖아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래도 술 쳐먹다니요, 대통령한테! 제삼자가 녹취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윤종군 위원 위원님, 위원님이 대통령 가지고 찬송가 부를 때 가만히 있었어요, 좀 전에.

○임이자 위원 맞으니까 가만히 계신 것 아니에요?

○윤종군 위원 예?

○임이자 위원 맞는 말이니까 가만히 계신 것 아니에요?

○윤종군 위원 절대 아니거든요.

○이소영 위원 웃겨 죽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 준 거예요.

○윤종군 위원 가만히 있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저것 명태군 씨의 녹취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제삼자 녹취 가지고 이렇게 막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냐고요.

○추미애 위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위원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예, 시작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다음 장면.

‘나하고 텔레그램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다 보내잖아’. 김건희가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해결되나요?’, 이것은 김건희 씨가 명태군을 명 선생이라 부르면서 국정 자문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은 누구 지휘를 받는 겁니까, 사실상?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시감이 있어서 그런데요. 8년 전, 2016년 11월에 뉴욕타임스에서 만평이 하나 나왔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이 대통령인 거지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런 모습입니다. 대통령 머릿속에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조종하는 명태군 씨가 여태까지 좌지우지했다. 외국 가는 것, 비행기 타는 것, 국가원수로서 남의 나라 조문, 장례 가는 것 이런 모두 다 실제 지휘자는 명태군이라는 것을 보고 국민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민망한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명 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그런데 전화했지. 그리고 ‘장모님 전화 저 모르는데요’ 평계 대고 발 뺏더니 그다음 날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계속 뭐라고 하면 빽 하고 다음 날 미안하다고 하더라. 윤석열이 지방 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는 자기 마누라한테 가지. 윤석열이 없을 때 서울 가서 자기 마누라하고 놀고 앉아 있자, 아크로비스타에서”.

이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야지만 국민이…… 아까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체면이나 서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위원님도 아마 가족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프셨던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태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반복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실망스러운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공개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명태군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해줬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명태군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추호라도 대통령이 법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예산 늘어난 부분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이 대통령실하고 경호처에 총 349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2022년 대비 해서도 47억이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긴축재정 기조이고 여러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잘리고 해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긴축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될 대통령실이 업추비, 특활비 이런 부분을 너무 작년…… 그렇게 방만하게 운용됐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저희는 꼭 필요한 곳 그리고 필요한 양만큼만 배정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국민들께 긴축을 해서 고통을 분담해 달라라고 해야 되는 대통령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증가 속도라든지 또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좀 보여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을 슬림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처음부터 틀어지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긴축재정의 모범을 대통령실이 못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나름 줄이고 있는 건데 보시기에 그렇게 표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양만큼은 있어야 저희도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보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정말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골프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골프 치실 수도 있지요. 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수석님도 오늘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예상되지 않았다면 골프 안 치셨을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볼 때,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7월 14일 이후로 높아졌다는 것도 분명하게 정보 판단의, 대통령님의 어떤 판단의 자료가 됐다고 보고요.

○**천하람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 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안 쳤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 전에 아예 안 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리고 좋아하시지도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야구는 꼭 좋아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홍철호 수석님, 대통령의 1시간은 아마 5200만 시간의 가치를 가질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골프 비용은 혹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강유정 위원**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있는 날 개인 비용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알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만약에 치신다면 개인 비용으로 치실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만약에…… 제가 날짜를 확인했더니 평일은 아니더라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는데 아까 화재에도 불구하고, 추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점쳐 본 미래에 혹시나 모를 트럼프 당선을 예상에 두고 불철주야 골프 실력을 연마하셨다면 이게 왜 예산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대답을 제가 수석에게 들어야 됩니까?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모른다는 답변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야 되는데 누가 내야 되는 것이 정당하냐 하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유정 위원** 군 골프장 이용하셨는데 정확한 골프 비용을 지금 모르신다는 뜻이군요.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골프 피(fee)라든가 골프 비용 얼마 냈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그리고 몇 분이 같이 쳤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 왜 모르십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오늘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정무수석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요, 위원님……

○**강유정 위원**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인지 아닌지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산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생각이지요? 사실이 아니지요? 왜 이렇게……

대통령실은, 대통령 보좌진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건, 의혹이건 사실이건 공식적 해명을 하도록 국민의 세금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런데 이제 대통령……

○**강유정 위원** 왜 모든 해명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고, 모든 해명에 있어서 잘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일하시는 것만 봐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해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명태군 씨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있던 2021년 9월, 대통령 당선 직후 2022년 4월 이렇게 두 차례 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해명 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 사실은 저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강유정 위원** 또 정확히 모르십니까? 정말 이 모든 예산 다 삭감해도 대통령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대통령 보좌를 제대로 못 하냐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해명을 못 하냐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대통령님을 저희가.....

○**강유정 위원** 안 여쭤보셨어요, 이렇게 심각한 사항인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니요, 지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심각해요.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저는 다시 생각해도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김혜경 여사가 받은 돈의 100배가 넘는 500만 원 두 번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여쭤는데 거기에도 대답을 못하신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것은 못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유정 위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예?

○**강유정 위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러면 검찰 조사가 끝을 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보좌진들 대통령실에서 뭐 하냐고 묻는 겁니다. 비서관들 뭐하고 계시냐고요.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추미애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추미애 위원** 이것 시간 제한으로.....

수석께서 예산 관련해서 제대로 답변 준비 안 하고 나오셨어요. 골프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요 또 국방위에서도 질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 준비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에 그냥 빠져나가시기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 바랍니다.

골프 티 배정 현황, 대통령이 함께 골프 친 일행 출입 현황, 특히 민간인은 별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군 골프장 사용 비용은 총 얼마인지,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또 국방위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골프장 카트, 골프장에 비치된 카트를 이용 안 하고 대통령 전용 골프 카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경호처 비용인 것 같은데요 총 몇 대를 구입했는지, 그 구입 비용은 얼마이고 비용 출처는 어디인지, 골

프장까지는 누가 공수하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홍철호 수석님,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보안적 제한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어떤 발언 신청인가요?

○임이자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임이자 위원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골프 쳤을 때 그런 내용들, 노무현 대통령 골프 쳤을 때에 주말에 골프 쳐고 거기에 대한 예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자료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자료제출, 국회의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경호처 차장님께 묻겠는데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가실 거고 골프장을 몇 번을 갔는지도 경호처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홍철호 수석께서는 8월 24일, 현재 알려진 것에 의하면 이날이 첫 번째인데 그 이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차장님도 역시 똑같은 답변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아시겠지만 일정과 동선에 대해서는……

○고민정 위원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없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홍 수석님께서 골프를 못 치면 외교적 결례 아니냐, 그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서 계속 트럼프 얘기도 하시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되게 의아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창호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범리적으로 따지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골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신다면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 말씀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선후 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말씀하시겠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닙니다. 선후 관계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 고민정 위원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야당 위원님들께서……

○ 고민정 위원 국민들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프 언제 쳤냐, 누구랑 쳤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모든 군인들도 다 금지당하고 무슨 화재사고가 났고 이럴 때 가장 최고에 있으신 대통령께서 골프를 치셨다는 것에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이유로 골프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지금 사실관계 꽉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도 못 하셔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위원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 고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마음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면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실 직원들 채용할 때 가끔씩은 이력서 같은 것도 보시고 합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누가요?

○ 고민정 위원 김건희 여사님이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고민정 위원 그렇습니까?

윤재순 총무비서관 나오셨지요?

잠깐 시간……

여사님 이력서 보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여사님 이력서를 제가 본다는 건……

○ 고민정 위원 여사님이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저는 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 고민정 위원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 고민정 위원 그런데 한 보도에 의하면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 사진,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해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 고민정 위원 웃기지요? 아니고, 저도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들 비웃고 계시지요? 저도 이 사람 누군지 찾아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왜 이걸 대응하지 않으시나요?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런 말씀은……

○ 고민정 위원 무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력서를 봤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저는 그 내용을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고민정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나중에.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답변 달라고요.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

○ 위원장 박찬대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 김성희 위원 안 하려 그랬는데 여쭤보니까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질의하십시오.

○ 김성희 위원 총무비서관님 나오셔서 잠깐만 말씀 좀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이나 무속 등으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헛웃음이셨던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분노의 표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저는 위원님들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김성희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선일보에 기명 칼럼으로 건국대 석좌교수가 썼던 칼럼 내용에 J 법사와 둔갑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J 법사는 건진을 이야기하고요. 이분이 대통령실 캠프의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왕’ 자를 써 준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면접을 볼 때 ‘자네 턱이 사각이고 두꺼우니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구먼’이라고 해서 채용을 추천해서 건진의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건국대 석좌교수가 천삼백 몇 회인가의 칼럼에다가, ‘둔갑술’이라는 제목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의아한 것은 이 칼럼이 아직 조선일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께 불경한 주장을 한 칼럼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지금 사람들의, 세간의 의심은 이런 대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아까 노컷뉴스 막 잡아넣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발언 하나만 해도 다 고발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조선일보에 현재도 버젓이 그 둔갑술 칼럼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이번 기회에 캠프에서였지만 건진법사가, J 법사가 면접을 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칼럼과 칼럼을 작성한 교수님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해 보시겠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 김성희 위원 그러면 정무수석님, 파악하셨지요? 어떤 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소관 부서에서 검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성희 위원 정무수석님,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이게 이미 대선 때 나와서 지금도 ‘둔갑술’이라고 치면 칼럼이 나오거든요. 이것 지금 들으시면 굉장히 황당하시지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분노해서 작성자를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대선 때의 일을 제가 잘 알고 있지도 못하지만 요즘은 분노할 일이 하도 많아 가지고요.

○**김성희 위원** 수석님, 죄송한데 저 정색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 석좌교수라는 분이 칼럼에다가 대통령실의 캠프, 그러니까 대통령후보 시절의 캠프에 J 법사, 건진이라는 것을 거의 명확히 해 놨고요. ‘왕’ 자를 쓴 주인공도 J 법사이고 그다음에 캠프의 면접, 선대본부 면접을 볼 때 턱이 사각인데 그러니까 ‘자네 배신 안하고 일 잘하겠구나’ 하고 뽑았다는 이야기를 풍문처럼 옮겨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풍문을 가지고 저희 대통령실이 대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조선일보의 기명 칼럼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니요, 그러니까 풍문으로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조선일보에 썼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김성희 위원** 그러면 저도 이제 풍문을 가지고 쓰면 법적 조치를 저한테는 안 하시겠네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분을 조치를 한들 그분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대통령실의 선택적 대응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보도, 주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 대응을 남발해 놓고 이번 명태군 사태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각종 무속 얘기가 나와도, ‘북악산의 대가리가 좌로 꺾여서 경호고 나발이고 뛰진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대응을 못 합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동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된 직후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명리학자에게 문자 여섯 글자를 보냅니다, ‘저 감방 가나요’. 무슨 안부 묻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감방 가나요’. 그 명리학자가 한겨레 취재에 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사주까지 봐줬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 여사가 평소에 다수의 명리학자, 역술인 등과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풍문이에요?

대통령실이 이런 것도 대응 안 해요? 제2부속실 만들면 다 나아집니까? 이런 일이 평평 터진 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이제 제2부속실을 설치해요? 윤석열 후보 시절에, 21년 12월 22일로 기억합니다. 제2부속실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이 한두 개 터졌습니까? 터질 때마다 제2부속실이라도 만들어라…… 벼티고 벼티다가 11월 7일 이번에 와서 부속실장 발령 냈다고, 이게 대통령실에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최소한 ‘저의 오판으로 시스템, 제2부속실 갖추라는 여론을 새겨듣지 못하고 내부 단속이 잘 안 돼서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든 말든 해야지요. 대통령실이 유리하면 답하고 불리하면 입 닫고…… 이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말이 안 돼

서 대응을 안 한다고요? 그 말이 국민 누구에게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2부 속실 설치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까? 누가 한 번이라도 인정했어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패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은 들었거나 아니면 거짓을 기반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리고 나면 그것이 정치에서 활용이 되고, 그러면 이게 또 확대 재생산되고 이마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는, 이걸 다 일일이 대응할 수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는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체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체념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체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것도 풍문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을 써 주는 언론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저희에게 종주권을 대면서 해명해 보라고 하시는 거기에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늘 이런 패턴이라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 그런데 제2부속실을 왜 만드는지가 질문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2부속실은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특감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또 설명하시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갑자기 특감 얘기가 왜 나와.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누구나 나중에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제2부속실이.....

○**노종면 위원** 위원장님,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아까 주질의 시간하고 보충질의 시간하고 바꾸셨지요?

○**서미화 위원** 저예요?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주질의시간하고 보충질의시간 바꾸셨지요?

○**서미화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오늘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으로 불출석하게 돼서 좀 유감입니다.

왕윤종 안보제3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지난 국감에서 오물풍선에 관해서 답변이 하나도 안 왔거든요. 다시 하나씩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먼저 오물풍선 날아왔을 때 민가가 없는 곳에 낙하시킬 수 있도록, 낙하해서 수거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예,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하고 있어요?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고개를 끄덕임)

○서미화 위원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GOP 선상에서 낙하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풍선이라도 한번 띄워 보고 실험해 봤을까요?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우리가 풍선을 띄운다는 말씀인가요?

○서미화 위원 아니, 실험을 해 봤느냐고요. 오물풍선을 띄우면, 그걸 낙하시키려면 실험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랬어요?

현재 북한에서 무인기 등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서는 대응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시지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렇다면 현재 GPS를 장착한 오물풍선까지 발견되고 있는데 오물풍선도 대응매뉴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이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아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대응매뉴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대응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오물풍선 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예,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응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래요? 오물풍선 대응매뉴얼이 있어요?

비행물체에 대한 대응매뉴얼 있는 것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오물풍선 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확실히? 대응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북한이 떨어뜨려야 수거한답니까, 대응매뉴얼대로 해야지?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그 대응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매뉴얼이 그런 거예요? 북한이 떨어뜨려 가지고 국민들 머리에 오물 다 떨어지고 나면 수거하는 게 대응매뉴얼입니까? 대답 지금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가만히 보고만 있고 떨어질 때 다 떨어지고 나면 수거하고, 이것이 매뉴얼이라고 하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작 오물풍선 하나 안전하게 낙하시킬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막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이것 납득 못 해요. 그런데 매뉴얼 있다고 하시니까 매뉴얼 있으면 갖고 오세요.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뭐라고 해도 국민들은 안보실이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저희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미화 위원 다음, 오물풍선 낙하현장 출동하는 인력들 예방접종 현황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국정감사 질의한 것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합참·경찰청·소방청 모두 현장출동인력 백신접종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물풍선에 직접 노출되는 사람들 백신접종 안 하고 현장으로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마치 호미한 자루 쥐어 주고 전쟁터로 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방접종 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안보실?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아니, 전체를 잘 수거해서……

○**서미화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오물풍선 수거하는 사람들 두창백신 예방접종 안 하고 있다고요. 그것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 백신 소요되는 게 없다고 국방부는 내년도 두창백신 예산 하나도 편성 안 했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국방부 두창백신은 유효기간이 죄다 지났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백신 맞아도 문제거든요.

안보3차장님, 제가 말하는 것 이해는 되세요, 지금? 듣고는 계신가요?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성 잘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질병청은 두창백신 유효기간 다 지났으니 구입비 달라고 난리고요. 안보실은 그런데 국방부에 유효기간 다 지났다고 알려 줬는데 예산 확보하라는 말도 전혀 없고 그런 지원도 안 하고 있어요. 국방부가 안전한 두창백신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중액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예.

○**서미화 위원**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안보실이 오물풍선 막을 선제적 대응을 못 하니까 지금 농림식품부·질병청, 유관 부처들이 각개전투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보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보실이 무슨 통합방위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러워요.

차장님, 국방부가 보유한 다중탐지키트로 검출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열 3종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뭐니까, 그 출혈열 3종 바이러스가?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

○**서미화 위원** 신원식 실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 했어요. 안보실은 참 무사태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볼라, 라싸열, 마버그예요. 3종이에요. 꼭 기억하셔 가지고 국민안전 문제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제대로 대처하십시오, 좀. 그것도 하십시오.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예, 알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대처하시고 이것 어떻게 했는지.

차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에 떨어지는 오물풍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나 유해성 물질이 상수원에 떨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신원식 안보실장이 지난 국감에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바이러스나 독극물은 아직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황당하고 무책임한 답변 했습니다, 안보실장이. 차장님도 혹시 똑같이 생각하시는가요?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제가 알고 있는……

○**서미화 위원** 상수도 주변에 막 오물풍선 떨어지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발견 안 됐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최대한으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미화 위원** 기생충 오물풍선 터지고 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미리 대응하는 대처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우리 의원실에.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확보하셔야지요. 그런데 안보실은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필요한 예산 신경도 안 쓰고요 업무추진비, 운영비, 직원들 밥 먹고 차 마시는 예산들 이런 것들은 증액했더라고요. 이것 국민들 앞에 정말 너무 염치없는 것이에요.

홍철호 정무수석님, 안보 공백과 국민 문제는 뒷전인 대통령실, 안보실 예산 증액, 아까 말했던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것 증액하는 것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윤종 안보차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제 북한이 오물풍선 또 날려 보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예.

○**서미화 위원** 그것도 모르시나요? 어제 날아왔어요. 모르세요? 모르시나 보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북전단 문제 삼으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더니 하루 만에 오물풍선이 날아왔습니다. 오물풍선 대응매뉴얼도 없어요.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갖고 오세요.

남과 북의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님, 전쟁과 안보 불안 부추겨 가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음모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국가안보실, 오물풍선 근본적인 해결책 조속히 마련하셔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위원님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충분히 이해하시면 답변 정도는 좀 해 주셔야지요. 안보실에서 아무리 차장님이라고 이렇게 아시는 것도 없고 어저께 오물풍선 넘어온 것도 모르시면 어찌자는 겁니까, 대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마 답변을 못.....

○**서미화 위원** 대응 만드셔서 의원실에도 말해 주세요. 모르시고 있잖아요. 대답 안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김성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예, 김성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 **김성회 위원** 지금 국가안보 제3차장인가요? 차장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위원이 묻고 있는데 고객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태도이고 중인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니까 당연히 서미화 위원 입장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불손한 태도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한 경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배준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준영 위원** 3차장님, 지금 어떤 분야를……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물어봐도 됩니까?

○ **위원장 박찬대** 아니요, 저한테 얘기하셔야지요.

○ **배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차장의 업무 범위가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이라든지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태도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찬대** 3차장님,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서미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한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하신 건지 그 의도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서미화 위원님께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배려를 충분히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에 관한 이슈와 기술안보에 관한 이슈, 사이버안보에 관한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2차장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제 담당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는 안보실장님을 포함해서 1차장, 2차장, 3차장 모두 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직접적인 사격보다는 안전하게 착륙해서 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그것을 수거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대** 3차장님, 고유 업무가 아니어도 안보실을 대표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서미화 위원님에 대한 태도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제3차장 왕윤종** 잘 알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신상발언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서미화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저는 대통령실 안보차장님이 제가 발언할 때 끄덕였다는 것은 안 보여서 몰랐습니다마는 적어도 안보차장은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로 안 하고…… 다른 위원님 할 때도 고개를 끄덕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 교육을 전혀, 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2018년부터 1명 이상의 고용 장소에서는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대통령실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정무수석님, 지난 국감 때 명태균 씨를 비롯한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용역을 몰아주려고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의혹을 우리 노동면 위원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기조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차 물었습니다, 주진우 위원이. ‘정기 여론조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세부 증빙내역이 좀 제출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여론조사 예산이 있어요. 29억 27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여론조사 안 하신다면서요. 이것 무슨 예산입니까? 정기 여론조사 안 하신다면서요. 간헐적으로 하는 정책 여론조사 이런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맞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요.

○**신장식 위원** 맞지 않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여론…… 그러니까 정기 지표조사라고 그때 말씀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정기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표조사는 대통령……

○**신장식 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앞에 다시 보여 주세요. 저 회의록에 있는데, 정기조사한 적 있느냐……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정기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있지를 않고요. 우리가 이 세목에 정기 지표조사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정기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과거 정부부터 내려오던 거가 돼 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것뿐인데요.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조사 하는지 간결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기재부에서 이걸 바꿔 주셔야 되는데 이거 바꾸

는 거를 되게 기재부에서는 용납을 잘 안 하셔서.....

○**신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정기 여론조사 예산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20억 1000만 원, 이거 어디 쓰는 예산이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저희 정책 결정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장식 위원** 정기 여론조사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신장식 위원** 볼 거고요. 정기 여론조사라면 저는 대통령께서 ‘경기하는 선수는 스코어보드 안 본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론조사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20억 이상 여론조사 비용이 잡혀 있어서 이게 정말 정책만족도 조사인지 아니면 국정지지율 조사인지 정치 지표조사인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썼던 예산은 어떤 건지 좀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국정지지율 조사는 단 한 건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최근에 윤석열 정부 국책사업인 경남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소위 창원산단 조성에 적극적으로 명태군 씨가 개입을 하고 여기에 나온 얘기 보면 창원시 부시장 그리고 담당 ‘르’ 국장, ‘명태군이 누군지 모르고 다섯 번이나 보고했던 게 비애를 느낀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태군 씨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보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신장식 위원** 한겨례21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어쨌든 산업단지 결정 과정은.....

○**신장식 위원** 신규 산업단지 관련해서 2022년 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창원으로 명 씨를 찾아가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은, 친분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권에 개입하지 말아라 하고 22년 말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명 씨 찾아간 사실 있습니까, 22년 말에?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신장식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리고 명태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요. 자기.....

○**신장식 위원** 명 씨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 씨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모르겠는데 명 씨 관련 의혹 사실무근이라면 대통령실에서는 왜 해명을 안 하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니요, 지금……

○신장식 위원 지금까지 10월 8일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으며 별도 친분은 없다고 밝힌 게 전부예요, 오빠 얘기하고. 왜 해명하지 않으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까 제가 해명을, 그 말씀은 드리려다가 못 했는데요. 오빠, 그 건은 왜 해명을 했냐 하면 그거는 사실은 명예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너무나 심각한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신장식 위원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명 씨 만나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리고 또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습니다. 그 오빠가 친오빠라는 것이……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명 씨 만난 사실이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쓴 여론조사 세부내역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이 여론조사 내역을 반영을 할지 말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거짓말로 이야기하셨으면 저는 예산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지난해에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11월 7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율 조사 같은 거는 하지 말라고 내가 지시한 바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주셨고 지금도 그 지시대로 저희가 그대로 업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말로 때우지 마시고요. 올해 20억 가까이 조사 비용, 어디다가 어떤 조사를 한 건지를 제출해야 저희들이 여기 또 20억 넘게 올라와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지 않게 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예산 다 삭감하게 될 겁니다.

.....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는데 지나기는 했는데 하시겠습니까?

○강승규 위원 오늘 대통령의 골프로 예산 질의가,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골프 거짓말이 누가 진실인지 제가 한번 저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의 핵심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 여행을 떠날 정도로 친분이 있던 사이임에도 대선 토론에서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결국 김문기 관련 혀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이다’. 중략하고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혀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항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려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다'.

정무수석님,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정무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의 기본하에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판단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저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거대 야당의 횡포, 골프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골프에 대해서 선거기간 동안에 골프를 치고도 안 쳤다고 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골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런데 그것도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민주주의 위기니 하면서 연일 시위와 사법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 대의민주주의를 흔든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께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감옥을 가야 된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 등이, 속기록을 제가 삭제해 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입법 권력이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과 역할 분담을 생각하지 않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마구 공격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정무수석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국정지지율 조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습니다. 그것 정무수석실 소관인데요.

○**윤건영 위원** 대단한 정부입니다. 그것을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자랑은 아닌 것 같고요.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제가 강기훈 행정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석님, PPT 한번 보세요.

왼쪽 편에 있는 게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올린 겁니다. 이 자료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만든 자료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해서 운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서부지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로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지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기훈의 범죄혐의를, 즉 인혁처로 징계를 올리면서 축소시키기 위해서 거리부터 축소 조작해서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위원님, 거리를 일부러 축소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윤건영 위원 아니면 1.3km가 어디서 나옵니까, 수석님?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러니까요, 법원 약식명령도 아마 여기에 같이 첨부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건영 위원 아니지요. 법원 약식명령은, 이것은 경찰 수사자료이고요 왼쪽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렸던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준 자료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이게 지금 해명이 이렇게 되네요.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보상에는 1.3km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낸 거고요.

○ 윤건영 위원 아니지요.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경찰이든 또는…… 지금 제가 의심할 수 있는 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조사를 할 때, 강기훈 씨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런 진술을 한 거고 진술 그대로 액면을 받아들인 겁니다.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 윤건영 위원 파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법원 자료하고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검찰에서 보내 준 자료에는 이렇게 돼……

○ 윤건영 위원 검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최종적으로 아마, 법원의 판단이 최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윤건영 위원 최종이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최종 할 때 아마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왜 잘못됐냐라는 거에 대해서……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러니까 이건 초기 단계니까, 지금 검찰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 윤건영 위원 아니 수석님,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해명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이 1.3km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수치를 만들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 윤건영 위원 그러면 강기훈 씨가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경찰이 허위 조사를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 내용은 좀 더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 윤건영 위원 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까? 법원이 정확하게 했는데 어디선가는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로 조사를 한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어쨌든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윤건영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기훈 씨를 계속 용산 대통령실에 다니게 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비서실장이 저희 감독하고 있으니까……

○**윤건영 위원** 저희 감독하는 게 아니라 쇄신하겠다고, 정리하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지금은 중앙정계…… 지금은 법적 절차는 끝나고요.

○**윤건영 위원** 법적 절차 끝났으니까 이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다음이 정무적 판단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해도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해야 될 문제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계속 다니겠네요. 계속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윤건영 위원** 대단합니다.

.....

○**위원장 박찬대**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대통령 골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도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자주 찾아서 비상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힘들다 이런 서울공항 관계자 또 주변 분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이용해서 국내 이동한 게 한 10여 회 남짓인 것도 이미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무수석님, 대통령 전용기 탑승과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자주 찾는다면 저는 사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서울공항 옆에 있는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냥 골프 치러 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서울공항을 찾는 날,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찾는 날 비행 일정보다 먼저 와서 골프를 쳤다 이런 제보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거짓 제보로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거짓 제보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윤종군 위원** 그러면 2022년 5월 이후에 태릉, 한성대, 남수원 이렇게 골프 치는 데 있잖아요. 그 부킹 내역을 공개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답변을 많이 흐리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신 게 올여름 이전에는 안 쳤다고 확신하신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올여름 이전에는 치신 적이 없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시면 22년 5월 이후에 세 군데 골프장 부킹 내역을

공개하셔도 되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 보안상 이유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또 보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건 어느 대통령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윤종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볼게요.

저도 국회의원이니까 제가 특정 날짜를 하루만 특정을 하면, 하루나 이삼 일 정도 특정하면 그날 부킹 기록은 열람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것은 제가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면 누가 얘기해야 돼요? 오늘 대통령실 최고 대장이 정무수석님 아니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 어느 골프장인지 그 골프장에 하셔야지……

○**윤종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면 그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만 공개든 열람이든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 범위를 벗어난다……

○**윤종군 위원** 저도 대통령 보안 보안 하니까 일부러 여기서 날짜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정무수석으로서의 권한과 범위를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상의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정무수석님 오셨으니까, 제가 정진석 실장님 오셨으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고개 숙여서 사과하셨잖아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끝날 때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과하신 거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셨어요.

뭐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 정무수석이시면 기자회견 준비할 때 옆에서 같이 준비하시는 자리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우선 담화문 속에서 저의 불찰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사과한다는. 그리고 고개 숙여서 태도로써 또 사과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사과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군 위원** 아니요, 기자가 질문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사과를 하겠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것은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면 제가 어린아이 혼내는 부모같이 또 물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연락 안 했었다는데 했다, 이게 밝혀져서 사과한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윤종군 위원** 다른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윤종군 위원** 그러면 김영선 공천 줘서, 공천 개입해서 사과하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것도 또……

○**윤종군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그것도 과도한 말씀이시고요.

○**윤종군 위원** 그러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명품백 이런 아내 의혹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윤종군 위원** 그거예요,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10년이 넘도록 이게 언론에서 계속 물고 다니니까……

○**윤종군 위원**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아내 의혹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물고 다니니까 그것도 사실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민망하신 일이라고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수석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국민들이 가장 대통령 비판하는 내용인데 이런 게 사과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정무수석님이 보시기에는 뭐 때문에 사과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종군 위원** 포괄적으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 문제까지도 포함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종군 위원** 정무수석님, 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셔 봤고요. 정말 참모들이 보좌를 잘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뭘 사과하는지도 모르고 사과하게, 이렇게 바보로 만들면 되겠어요, 참모들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참모를 정확하게 하셔서 가부간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모두 발언에 대통령이……

○**윤종군 위원** 그동안 뭐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다른 것은 의혹이니까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대통령이 국민들께 고개를 숙여도 숙여야 되는 거지 뭘 사과하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없이 일어나서 고개 한번 숙인다고 그게 사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일반 국민들의……

○**윤종군 위원** 질문 아닙니다. 대통령님 잘 모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대통령님이 하실 말씀은 그 담화 속에 들어 있었고 또 기자들과의 대화 속에도 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두 분 남으셨는데요.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위원**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 그랬는데 정무수석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 윤건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걱정을 해도 저희가 할 문제니까,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양문석 위원**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의 것입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 **양문석 위원**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의 것이냐고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저희는 대통령님을 잘 보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질문했던 데 대한 답변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을 해도 저희가 걱정할 문제라고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예.

아니요, 저는 그것을 겸손의 표시로 한 겁니다.

○ **양문석 위원** 보세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가 언성 높여서 말씀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양문석 위원** 보세요. 그게 예의를 갖춰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던 과정에서 나타난 발언입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의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직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대통령이 골프를 치나 테니스를 치나’, 아까 그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있었지요? 정성국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골프를 치나 테니스를 치나 대통령님이 뭐 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지금……

○ **양문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당 윤리규칙 제22조가 사행행위·유홍·골프 등에 대한 제한입니다. 테니스 없어요. 은근슬쩍 골프와 테니스 주말에 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경호처장, LPGA가 14명이고 PGA가 3명인가 4명이라고요? 장난쳐요? 홍준표, 골프 치다가 당원권 정지 10개월 당했어요. 골프가 테니스예요? 그리고 테니스하고 골프를 섞어내면서 우리가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무리한 지적을 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해요?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꼭 외워 놓으세요.

국민의힘당 윤리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홍·골프 등의 제한)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쳐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의힘당 윤리규칙입니다. 테니스가 그렇게 들어와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골프 주말에 쳤다고요? 이틀 전에 뭐 했어요? 사과하고 기자회견했지요?

지금 대통령실의 문제는 이러한 태도들입니다. 국민들이 물어보고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기자의 태도는 무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테니스 치든 골프 치든 뭐가 상관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20%가 깨지는 거고 10%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발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재발 방지하겠다, 잘 보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정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이 오늘 저에게 주신 질문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는 왜 거짓말했느냐, 트럼프 당선 이전에 골프를 쳤으면서 왜 트럼프와의 골프외교 때문에 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우리의 해명은, 그때 당시의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골프 친 배경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아니고……

○양문석 위원 녹취록이나 녹화 보세요. 아까 정성국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와 관련된 사항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또 두 번째……

○배준영 위원 소리 좀 그만 지르십시오. 소리 그만 지르세요.

○위원장 박찬대 수석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위원님, 이렇게 언성 높으시게 해서 제가 마치 야단맞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것도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양문석 위원 변명과 해명과 거짓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닙니다. 제가 아까 테니스……

○양문석 위원 아까 정성국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준영 위원 위원님 그만합시다!

○위원장 박찬대 질답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왜 뒤에다 의미 부여를 해요!

○배준영 위원 그만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위원님, 테니스와 골프를 왜 제가 비유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위원장 박찬대 홍철호 수석님, 그게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논쟁이 이루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

아니, 상대방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없잖아요.

- 배준영 위원** 답변 끝났지 않습니까! 답변 끝났잖아요!
- 양문석 위원** 답변 끝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 배준영 위원** 안 됩니다!
- 양문석 위원**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 배준영 위원** 안 됩니다!
- 양문석 위원** 정말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분이.
- 위원장 박찬대** 두 분 다 조용히 해 주시고요.

홍철호 수석님께서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길게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질문하는 위원의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하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마지막 질문으로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소영 위원** 정무수석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포함해서 여러 지방선거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아실 거고요. 포항시장 공천에 대해서는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하라고 하시면서 역정까지 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였던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했는데 아직 대통령실 입장이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뭔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 당시 공천은, 이준석 의원님께서 그 당시 대표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의 요인은 공천 잘됐다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로서 만족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 공천에 개입하신 적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소영 위원** 공천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 말씀을 하신 이준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공천이 잘됐는지 안됐는지를 떠나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에게 ‘포항시장 공천은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해라. 그리고 강서구청장은 괜히 민주당 좋은 일시키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들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역정까지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그게 대통령실 입장인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대통령께서 공천에 개입하신 사실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님께서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사실관계를 좀 들어 봐야 되겠지만……

- 이소영 위원** 정무수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준석 의원의 얘기가 있고 나서 대통령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무수석님의 믿음인가요? 대통령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대통령님께서 누차, 이번 담화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이소영 위원** 그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지금 외교활동 중이셔 가지고요.

○ **이소영 위원** 그것 물어보지 못하셨어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물어볼 수도 없고요. 또 물어볼……

○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러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정무수석님, 지금 이 사실 밝혀지고 옛새가 지났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냥 모른다, 대통령이 외교활동 중이어서 이것 물어보지 못했다고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 그럴 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른다가 아니고.

○ **이소영 위원** 그건 정무수석님의 믿음이신 거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고요. 사실이 뭐냐고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 이준석 대표님은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소영 위원** 사실이 아닌 겁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소영 위원**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소영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내 정돈을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8시)34분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배준영 간사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몇 번째인지 모를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단 의사진행에 정말 뭐라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 준비 당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단 1명도 받아주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과 참고인 30여 명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그 중 20여 명은 타 상임위에서 이미 증인채택이 이루어졌던 분들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망신 주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채택으로 불출석을 유도한 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특정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동행하면서 그 과정을 언론에 알리고 SNS를 통한 이슈 몰이로 사실상 마녀사냥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한 일반증인의 숫자가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지난 2023년까지 약 200명 수준이던 증인 숫자가 올해 들어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일반 국민들까지 마구잡이로 불러 앉히며 민주당의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입법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슈 몰이를 계속하기 위해서 대통령 영부인과 보좌직원들에 대한 공세를 통해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불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오직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콜라 고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더욱이 지난번에 위증교사의 혐의가 있는 강혜경 증인의 변호인인 노영희 씨에 대한 조치는 묵살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예, 1분 더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그 어느 곳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모든 상임위의 대표격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처럼 일방·편파적인 증인 고발을 이어 가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또다시 정쟁으로 얼룩진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고발 시도는 멈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야당 먼저 하고……

○위원장 박찬대 박성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부에 대한 견제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은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명령을 내려서 국회에 출석하

라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국회법에는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그렇게 세게 두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할 때 지금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당연히 증인을 채택하는 거고요 또 참고인을 채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또 더 중요한 자료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거부를 하고 동행명령장 수령을 하는 것을 회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고발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회 모욕과 관련해서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자, 또 하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에 관련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자 그리고 국회를 모욕한 자, 증언을 거부한 자, 그래서 저희들 야당에서는 10명의 증인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거고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또 하나,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고발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위원장님, 애초에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우리 여당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국정감사 증인들을 채택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불출석했다고 이분들 증인에 대해서 또 합의도 없이 고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입법 독재를 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하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별씨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고발을 한다면 이건 그냥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여러분들의 보복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며칠 전에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의원들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하셨던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화가나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풀이로 예산 대폭 삭감하고 보복으로 증인들도 대대적으로 고발하고, 정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회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까지 이렇게 증오의 대상으로 물들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증인 고발 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 안건은 올해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증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 증언을 함에 있어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증인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김건희, 이원모, 황종호, 강기훈, 김대남, 김영선, 박희영, 이윤세, 이충상, 김용현 등 10명의 피고발인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26인)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유정 고민정 권영진 김민석 김성회 노중면 박성준  
박찬대 배준영 모경종 서미화 신장식 양문석 윤건영 윤종군 이소영 임이자  
정성국 정진욱 주진우 천하람 추경호 추미애

### ○출장 위원(1인)

전용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주성훈

### ○출석 국회입법조사처장임명예정자

이관후

###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법제실장 박철호

의사국장 정명호

국제국장 구현우

관리국장 임종수

방송국장 김명진

의정연수원장 서덕교

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공보기획관 성소미  
감사관 김복현  
경호기획관 황충연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광선  
인사과장 남궁인철  
운영지원과장 김대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송수환  
국회도서관  
관장 이명우  
의회정보실장 현은희  
법률정보실장 장지원  
기획관리관 이진경  
정보관리국장 유미숙  
정보봉사국장 김준임  
국회기록보존소장 송미경  
국회부산도서관장 조정권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 지동하  
예산분석실장 김경호  
추계세제분석실장 상지원  
경제분석국장 진익  
기획관리관 정승환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직무대리 정순임  
경제산업조사실장 강종석  
사회문화조사실장 홍일표  
기획관리관 심정희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직무대리 유희수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유혜미  
총무비서관 윤재순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왕윤종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기획관리실장 안경호  
경비안전본부장 이진하  
지원본부장 김대경  
경호안전교육원장 노승룡  
감사관 강병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남규선  
상임위원 이충상  
사무총장직무대행 이석준  
기획조정관 조영호  
침해조사국장 서수정  
차별시정국장 염형국  
군인권보호국장 박홍근  
교육협력심의관 안성율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3)

11월 1일 회부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7)

11월 2일 회부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9)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1)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0)

이상 4건 11월 6일 회부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7)

11월 13일 회부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1)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7)

이상 2건 11월 15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2024. 11. 4.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4. 11.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이상 2건 1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청원 회부**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

(2024. 11. 14. 임태훈 외 2인으로부터 김용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55)

11월 14일 회부됨

### **○요청서 회부**

####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4. 10. 31. 의장 제의)

10월 31일 회부됨

#### **2024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 요청**

(2024. 11. 6. 의장 제의)

11월 6일 회부됨

####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동의 요청**

(2024. 11. 15. 의장 제의)

11월 15일 회부됨

### **○보고서 제출**

#### **제22대 국회 2024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

(2024. 11. 6. 국회사무총장 제출)